

## 2015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방식 확정

상대평가 · 탄력적 상대평가 · 패스/페일 세 유형 나눠  
재수강 기준도 강화

### 60주년과 함께 바뀌었습니다

1955년 4월 11일 창간된 외대 학보는 이번 해 창간 6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외대학보는 60살 생일을 맞은 이번 해를 기념해 제호 및 디자인을 개편하고 홈페이지(<http://www.hufspres.net/>)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현재 트렌드와 주 독자층의 취향을 고려해 깔끔하고 세련된 느낌을 주고자 신문의 제호와 전체적인 디자인을 모두 바꿨습니다. 홈페이지 또한 새로운 주소와 함께 이미지 중심의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독자 여러분께 더욱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모바일에서 홈페이지에 접속하셔도 쾌적하게 기사를 읽을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외대학보는 앞으로 독자 여러분께 더욱 유용한 정보를 보도하고 학내 구성원들의 소통을 도우며 올바른 대학문화 창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b>사령</b>	
부장	김다정(경상·경제 12)
차장	이진형(통번역·이탈리아어 14)
정기자	김현진(경상·국제금융 14) 박윤진(통번역·태국어 14) 박은혜(동양어·터키어 14) 유혜민(서양어·프랑스어 14)
<b>면</b>	
유다송(국제지역·러시아 11)	
임정혁(국제지역·브라질 14)	
<b>임기만료</b>	
최소영(통번역·스페인어 13)	

지난 2월 25일 전체교수회의를 통해 2015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방식 최종안이 확정됐다. 결국 절대평가는 사라졌지만 상대평가의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뉘었고 일부 과목은 패스/페일(Pass/Fail)로 지정됐다.

이번 결정까지 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모든 과목 상대평가다. 기존 방침으로는 수강생 20명 미만의 강좌와 원어강의는 절대평가가 허용됐다. 그러나 2015학년도 1학기부터는 모든 강의를 상대평가로 시행하며, 수강생 10명 이하의 강좌만 상대평가보다 평가기준이 완만한 탄력적 상대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탄력적 상대평가’란 상대평가보다 더 많은 비율의 학생에게 A학점 이상을 주는 평가 방식이다. 상대평가에서 A학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학생이 상위 30% 이내에 든 학생이라면 탄력적 상대평가에서는 상위 50% 이내의 학생까지 가능하다. B와 B+ 학점은 상대평가라면 상위 65%까지 주어지는데, 탄력적 상대평가에서는 80% 이내다. 이렇듯 탄력적 상대평가는 기존의 상대평가에 비해 학점을 받는 데에 있어서 보다 경쟁이 덜한 평가 방식이다.

이러한 탄력적 상대평가는 상대평가로 성적을 처리하기 힘든 교직, 군사학, 이공계 실험학습에도 적용된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학생 수 비율산정시 소수점 아래 자릿수를 반올림이 아닌 올림으로 계산한다. 그리고 패스/페일 방식은 체육 실기과목(2시간/1학점)과 교수나 강사의 요청이 있는 이공계 실험 실습과목, 인문대의 일부 과목들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재수강생, 군위탁생, 대학원생, 외국인 학생(외국 국적 학생, 재외국민, 새터민)은 상대평가에서 제외된다.

재수강 제도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전



치를 수 없다. 8분의 1 이상 결석하면 A학점 이상을 받을 수 없고, 지각 두 번은 한 번의 결석으로 간주한다. 출석 점점 역시 사진이 붙어있는 출석부를 사용하 때 시간 출석여부를 확인하고 성적평가에 반영한다. 성적 평가는 과제물, 중간시험, 기말시험, 출석, 기타를 모두 반영한다. 상대평가 제외자 역시 이 기준을 따른다.

이번에 확정된 안은 2월 3일 처음 나온 성적평가방식안에서 세 차례 수정된 안이다. 하지만 이러한 결정은 지난해 12월 학교가 2014학년도 2학기 성적평가방식을 전 과목 상대평가로 변경하면서 사실상 예고됐던 처사다. 소급적용 이후 서울배움터 비상대책위원회와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는 학교의 주장을 철폐시키기 위해 여러 방안들을 강구해왔다. 그러나 학교 측은 2015학년도 성적지침도 강화할 것이라는 의사를 전했고, 양 배움터 총학생회는 2월 3일부터 교무처장 및 교직원과의 면담을 통해 2015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방식에 대해 요구안을 제시해왔다.

학교는 이번에 확정된 평가방식에 대해 2014학년도 2학기 성적을 전 과목 상대평가로 처리했을 때와 동일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학교 측은 교육부의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더 나은 점수를 받고, 학교의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해 성적평가방식을 바꾸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재원 글로벌배움터 교무처장은 “처음에는 학생들이 힘들겠지만 크게 보면 학점 인플레이션이 해소돼 학교의 이미지가 개선될 것”이라고 전했다.

#### 2015-1학기 변경(안) 주요항목

재수강 횟수	제한없음 →	5회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 계절학기 재수강은 제외)
재수강 취득성적 상한	제한없음 →	A	
재수강 성적표 기재 여부	미기재 →	기재	(2015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체육 실기 과목 평가	절대 →	Pass / Fail	

체 과목 상대평가와 더불어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재수강 횟수 제한이다. 2015학년도부터는 한 학기에 재수강을 할 수 있는 횟수가 5회로 제한되며, 계절학기는 재수강 횟수에서 제외한다. 하지만 이미 수강신청이 진행된 점을 고려해 재수강 5회 제한은 2015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또한 재수강을 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학점 상한이 최대 A학점으로 제한된다.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재수강한 이

력이 성적증명서에 명시돼 재수강 이전과 이후 수강기록이 모두 표기되며, 이전 수강 과목 앞에는 'R(retchake)' 표시와 함께 받았던 학점도 표시된다. F학점도 성적에 반영해 취득 학점은 인정되지 않고, 재수강을 하더라도 NA(Not Account)를 표기하여 기록에 남는다.

성적평가가 더욱 엄격하게 이뤄지도록 권장사항도 제시됐다. 이에 따르면 수업의 4분의 1을 결석한 학생은 그 과목의 시험을

이진형 · 박윤진 기자 90yon@hufs.ac.kr

###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2015학년도 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5학년도 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서류접수	전형일시	합격자 발표	등록기간(예치금)	비고
특별전형	4.01(수)~4.09(목)	4.01(수)~4.10(금)	4.25(토)	5.14(목)	5.18(월)~05.22(금)	
일반전형	5.06(수)~5.14(목)	5.06(수)~5.15(금)	5.30(토)	6.18(목)	6.22(월)~06.26(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8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0(4.5만점), 2.8(4.3만점), 2.5(4.0만점), 85(100점만점) 이상
-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8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평균기준 : 3.5(4.5만점), 3.3(4.3만점), 3.0(4.0만점), 90(100점만점) 이상

나. 일반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8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8월 취득 예정인 자

**3.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대학원 교학처 제출 (우편, 방문 등)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기술시험(면접)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5.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6. 기타사항**

-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HUFSSan, 입학성적우수, 성적우수, 외국인유학생, 학과근로조교, 재외동포재단, 학생회임원, 교학처근로조교, 정부초청, 한국장학재단, 기타 기업체 및 단체 장학금 등)
- 나.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류 가능
- 다.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 라. 국내저명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 마.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 바. 전문연구원(병역특례) 제도 운영
- 사. 기타 분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http://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2387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 상평통보 일지

이번 겨울방학 우리학교에는 또 다른 변화가 생겼다. 새로운 성적평가안이 나왔고 그 방식으로 성적을 매겼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고, 학생들의 불만은 법적 싸움까지 이어지게 됐다. 그런데 이 업무방식 낫설지만은 않다. 이번 겨울방학동안 우리학교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봤다.

서울배움터 비상대책위원회(사) /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글)

<p><b>12월 17일</b></p> <p>교육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관련 내부 기본방침 공지(각 대학 기조처장에게 통보)</p> <p><b>12월 20일</b></p> <p>교육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내부 방침 확정</p>	<p><b>12월 22일</b></p> <p>전체교수회의를 거쳐 학교 측 성적평가원칙 변경 통보(전과목 상대평가)</p> <p><b>12월 23일</b></p> <p>(사) 임시 학생총회 소집 (D급 부실대학에 대한 정보 공유 및 논의, 성적평가방식변경안 대응책과 분관접거 논의), 1차점거(~24일)</p>	<p><b>12월 24일</b></p> <p>교육부 '2015년 대학 구조개혁 평가' 기본계획 확정 발표(정성지표 평가 보고서 3월 말까지 제출, 정량지표 자료 4월 혹은 5월까지 제출)</p> <p>(사) 1차점거, 처장과의 면담 점거에는 100명 이상의 학생을 참여, 오전 11시부터 12시 처장과의 면담 진행, 학교 측 "전체 상대평가 전환을 철회하지 않겠다." 이후 서울배움터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 서명운동 시작.</p> <p>(글) 1차 간담회 학교 측 "소급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다" 간담회한 상황 호소, 학생들 "총장과의 면담 혹은 성적입력·정정기간을 연기하라" 26일 글로벌배움터에서 기조처장과 총장과의 면담 약속.</p>	<p><b>12월 25일</b></p> <p>(사) 교수님들께 상황 보고 및 성적입력 보류 요청 이메일 발송</p> <p>(글) 외국인 교수님들께 이메일 발송</p>	<p><b>12월 26일</b></p> <p>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 개혁안 발표(정성평가, 정량평가 지표)</p> <p>(사) 소급적용 철회 촉구 집회(~31일)</p> <p>(글) 2차 간담회(교수서명, 교수 의견 자료 수집), 신문고 민원접수</p> <p>학교 측 "성적정정위원회를 운영해 학생들의 성적을 변경해 주겠다" 학생 측 "성적정정위원회보다 성적입력유보와 기조조정처 자료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달라"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성적입력유보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시뮬레이션 후 또 다른 문제가 생기면 연기에 대해서는 의하겠다" 밝힌. 또한 29일 서울배움터에서 열리는 간담회에서 기조조정처 자료에 대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줄 것을 약속.</p>		
<p><b>1월 4일</b></p> <p>성적정정기간 마감</p> <p><b>1월 5일</b></p> <p>성적정정위원회를 통한 추가 성적정정 진행(~9일)</p>	<p><b>1월 2일</b></p> <p>(사) 평화시위, 총장과의 면담 오전 11시, 신년하례식이 열린 서울배움터 오바마홀에서 평화시위 진행, 이후 오후 2시 30분에 총장과 기조조정처장, 양 배움터 교무처장과 학생복지처장, 서울배움터 비대위장 단과 중앙운영위원회가 면담에 참석, 학생대표 소급적용 철회 요구, 학교 측은 소급적용 철회 불가 주장, 학교 측 "이 사건이 마무리되면 총장 명의의 사과 서신을 보낼 것이며, 성적정정위원회를 어떠한 압력도 없이 공정하게 운영할 것"</p>	<p><b>1월 2일</b></p> <p>(사) 기자회견 서울 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 제출</p> <p>(글) 소급적용 철회, 해명, 사과 요청 성명서 제출</p>	<p><b>1월 31일</b></p> <p>성적입력기간 마감</p> <p>(사) 서울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실시</p> <p>(글)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위) 회의 개최</p> <p>1월 2일의 글로벌배움터 임사회가 취소되면서 확운위 개최, 글로벌배움터의 공식 입장 표명 "성적정정위원회는 실질적인 구제가 어려운 기구"</p>	<p><b>1월 30일</b></p> <p>교육부, 대학 평가 지표 중 학생 평가 지표 변경안 발표</p> <p>(사, 글) 서울배움터 사이버관 대강당, 오후 2시 총장 간담회 진행(학교 측이 성적정정위원회 운영 건 제시)</p>	<p><b>1월 29일</b></p> <p>교육부, 대학 평가 지표 중 학생 평가 지표 변경안 발표</p> <p>(사, 글) 서울배움터 사이버관 대강당, 오후 2시 총장 간담회 진행(학교 측이 성적정정위원회 운영 건 제시)</p>	<p><b>1월 27일</b></p> <p>(사) 성적평가제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시작</p> <p><b>12월 28일</b></p> <p>(사, 글) 합동중앙운영위원회 회의 개최(글로벌 배움터 가처분 소송보류 결정)</p>
<p><b>1월 6일</b></p> <p>(사) 서울배움터 비대위장과 교무처장 면담</p> <p>교무처장은 △겨울 계절학기 성적평가 전면 상대평가 진행 △성적증명서 발급은 1월 12일 이후에 가능 △그 전에 필요한 학생들은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수기로 된 증명서 발급 가능하다고 설명, 교무처장 "2015학년도 성적지침을 강화해 원어강의를 상대평가로 진행하고, 절대평가 시행 인원을 1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이다. 또한 성적정정에 대해서는 메일, 문자, 팝업창을 통하여 교수님, 감사님들께 공지됐다"</p>	<p><b>1월 8일</b></p> <p>(사) 임시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 개최</p> <p>가처분 신청 진행상황 공유, 2015학년도 1학기 성적지침 관련 성명서와 교육부대학구조개혁평가 규탄 선언문 채택.</p>	<p><b>1월 10일-11일</b></p> <p>성적정정위원회 정정 내용 확인</p> <p><b>1월 12일</b></p> <p>교무처 최종 성적 공지</p>	<p><b>1월 22일</b></p> <p>(사) 서울 북부지법 가처분 신청 1차 변론</p> <p>학교 측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고 80%의 성적 이 정정됐으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구제됐다" 학생 측 "소급적용은 부당한 처사다"</p>	<p><b>1월 28일</b></p> <p>(사) 서울 비대위장, 교무처장 면담</p> <p>서울배움터 비대위장 "작년 11월에 공지됐던 요구안을 관찰해야 한다." 교무처장 "더 강화된 안이 필요하다"</p>	<p><b>2월 2일</b></p> <p>성적평가방식변경 관련 처장단 회의</p>	
<p><b>3월 2일</b></p> <p>개강</p>	<p><b>2월 27일</b></p> <p>2015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 기준 변경 공고</p>	<p><b>2월 17일</b></p> <p>(사) 서울배움터 비대위장과 교무처장 면담</p> <p><b>2월 23일</b></p> <p>(글) 글로벌배움터 총학생회 제 2차 교무처장 및 교직원 면담</p> <p><b>2월 25일</b></p> <p>전체교수회의의 2015-1학기 성적평가방식 확정안 결정</p> <p>(사) 49대 중운위 전체교수회의 전 리플렛팅 진행</p>	<p><b>2월 4일</b></p> <p>(사) 한국교육개발원 전국 10개 대학 학생대표자와 황우여 교육부 총리 간담회</p> <p><b>2월 9일</b></p> <p>(글) 성적평가개편위원회 성적평가 방식변경 관련 요청안 발의</p> <p><b>2월 12일</b></p> <p>가처분 소송 기각</p> <p>원인 ① 학교가 전체학생간담회 개최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 ② 성적정정위원회를 통해 70% 가량 성적 정정 ③ 이미 성적처리가 끝남</p>	<p><b>2월 3일</b></p> <p>(사) 서울배움터 비대위장, 학생복지처장, 교무처장, 글로벌배움터 교무처장 면담</p> <p>오후 3시, 서울배움터 비대위는 확실한 성적평가지침안을 요구, 학교 측으로부터 2015학년도 1학기 성적평가방식안을 제시, 학교 측 "이는 확정안이 아니며 학교 측은 2월 9일 처장단 회의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확실한 사안을 공개할 것"</p> <p>(글) 성적평가개편위원회 개최</p> <p>오전 11시, 글로벌배움터 학생대표는 △원어강의와 이공계열 실험실습 강의 절대평가 △인문대학 필수 이수 과목들의 패스/패일 전환 △1년에 재수강 횟수 3회 △재외국민 절대평가 적용 △수강인원 19명 이하 탄력적상대평가 시행 요구, 이에 대해 학교 측 "2월 9일 처장단 회의에서 더 많은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것"이라고 답변.</p>		



이진형 · 박윤진 기자 90yoon@hufs.ac.kr

## 2015년 월드문(WorldMUN) 개최

2015년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일산 KINTEX에서 미국 하버드 대학교와 한국의 국어대학교가 함께 주최하는 2015 Harvard World Model United Nations의 약자인 월드문은 세계 최대 규모의 대학생 모의유엔 행사이다.

이 행사는 1991년 하버드 학생들로부터 시작돼 세계의 청년들이 모여 함께 세계 각국이 가진 문제, 더 나아가 지구촌이 당면한 문제에 대해 토론해왔다. 또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국적의 차이를 넘은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다. 2015 월드문 서울에서는 한국의 '한강의 기적'을 떠올리며 한국의 2015년 경제개발계획에 대해 알아보고 토의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월드문 웹사이트(www.worldmun.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국외대체 다운받아 사용합시다!

우리학교 UI(U-Identity)시스템을 바탕으로 개발된 한국외대체가 2월 5일 배포됐다. 한국외대체는 우리학교만의 색깔을 확립하고 품격을 높이는 데에 의의가 있다. 앞으로 이 글씨체는 우리학교에서 개최하는 여러 행사 및 발행물에 적용 예정이다. 한국외대체는 우리학교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5학년도 학부등록금 동결

우리학교는 지난해에 이어 학부 등록금이 동결됐다. 학부 입학금은 9천원 인하됐으며, 대학원의 입학금, 등록금 모두 동결됐다. 등록금 납부 방식에도 변화가 생겼다. 앞으로는 제한적이지만 등록금 분납이 가능해졌다. 지난 1월 제 1차, 2차에 걸쳐 등록금심의위원회가 열렸다. (이하 등심위) 등심위에서는 2015학년도 등록금과 예산에 대해 심의했다. 현재 등심위는 학생위원 4명과 학교측위원 5명으로 구성돼 학교 측의 의도대로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학생들의 입장이며 이번 등심위 또한 학생 측의 전면 반대에도 불구하고 예산과 등록금 동결이 의결됐다.

## “국내 최고의 English Language Teaching Program”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야간) 2015학년도 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 1. 2015학년도 후기 입시일정

구분	특별전형(First Round)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15. 04. 13(월) ~ 04. 24(금)	2015. 05. 26(화) ~ 06. 05(금)
고사장 발표	05. 07(목) 15:00	06. 18(목) 15:00
면접전형	05. 09(토) 09:30 예정	06. 20(토) 09:30 예정
합격자 발표	06. 01(월) 15:00	07. 13(월) 15:00
등록예치금 납부	06. 01(월)~06. 05(금)	07. 13(월)~07. 17(금)

### 2. 모집학과 및 전공

- 가. 영어교수학습지도학과 (ELT)
- 나. 영어교육콘텐츠개발학과 (ELT CD)

###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5월 졸업예정자
-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모든 서류를 빠짐없이 제출해야 최종 접수가 완료됩니다.

###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영어Writing 포함)
-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면접시험에 불참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 6. 전형장소

서울캠퍼스 (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 7. 기타사항

- 가. 신입생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학과별 약간 명)
- 나.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금 (학과별 약간 명)
- 다. 학점인정 혜택 (한국외대 TESOL 전문교육원 수료자, TESOL 관련 석사학위소지자, TESOL 석사학위소지자)
- 라. TESOL 연구과정 수료자 우대
- 마. 3+1 프로그램 (하와이대학교)
- 바. Internship 프로그램 (샌디에고, 하와이)

###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tesolgs.hufs.ac.kr 및 모집요강 참조

### 9. 한국외국어대학교 TESOL대학원 교과과

TEL 02-2173-3521~2 FAX 02-2173-3358 (우)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이문동 270)

# 2015학년도 1학기 교양 교과과정 개편

## 새 학기 교양 과목 개편은 어떻게 이뤄지나?

2015년 1학기부터 졸업을 위해 반드시 들어야 하는 필수교양을 포함해 교양 과목이 대폭 달라진다. 필수교양인 '실용외국어'는 '교양외국어'로 이름이 바뀌었고 글쓰기는 미네르바인문강좌로 개편됐다.

2014학년도 입학생까지는 FLEX, IBT, 외국어연수 평가원 수료 성적 등 어학성적으로 실용외국어의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하지만 15학번 이후 입학생부터는 교양외국어의 학점을 어학성적으로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수강신청을 통해 수업을 들어야만 학점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실용외국어를 자유롭게 수강할 수 있었던 이전과는 다르게 15학번부터는 신입생영어진단평가에서 상위 20%(FLEP 1~2등급)의 성적을 받은 학생만이 영어가 아닌 기타언어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다. 영어

전공자들은 영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를 선택해야 한다. 이에 대해 김미자 서울배움터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 팀장은 "교양외국어에서 영어의 비중을 높이고 학점 이수 기준을 까다롭게 정한 것은 우리학교의 학생으로서 영어는 기본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미네르바인문강좌는 글쓰기보다 다양한 내용을 다룰 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됐다. 미네르바인문강좌 역시 글쓰기 과목과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기본적인 교양으로서의 글쓰기 능력을 높이기 위한 강의로, 글쓰기를 대신해 필수교양으로 지정됐다. 2015학년도에 입학한 학생이 졸업을 위해서 들어야 하는 기초교양은 '미네르바 인문강좌1:인간과 문명', '미네르바 인문강좌2:글

로벌 소통과 배려', '교양외국어 1,2', '신입생 세미나'가 있다. 서울배움터 학생은 이에 더해 'HUFSCarrer Design 진로설정과경력개발'을, 글로벌배움터 학생의 경우 'HUFSCarrer Design Vision Mentoring'까지 포함해 총 14학점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교양 학점도 더욱 늘어났다. 실용외국어와 글쓰기가 각각 2학점이었지만 교양외국어와 미네르바인문강좌는 각각 3학점으로 인정된다. 핵심교양도 '언어와 문학', '문화와 예술', '역사와 철학', '국가와 사회', '과학과 기술' 영역 중 각각 1과목씩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핵심교양에서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점이 14학번보다 4학점이 늘어난 셈이다.

이렇게 교양 교과 과정이 대폭 바뀐 배경에는 2014

학년도 2학기에 교양과정위원회가 승격해 만들어진 미네르바 교양대학이 있다. 교양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과정 개편 외에도 이번 학기부터 강의중심교수제, 특임교수제도 실시된다. 김미자 서울배움터 학종지 팀장은 "교양교과과정 개편을 통한 교양교육의 강화로 우리학교는 인성교육은 물론, 다양한 방면으로 진리를 탐구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기대를 밝혔다. 신민정(동양어·터키어 15) 양은 "전공 말고도 다양한 과목을 배울 수 있는 기회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박은진 기자 90yoon@hufs.ac.kr

## 글로벌경영은 경영으로, 사범대학은 중국어교육과 신설

### 서울배움터 학칙 개정돼

글로벌경영대학이 경영대학으로 바뀌고 사범대학에는 중국어교육과가 신설된다. 이는 지난 2월 4일 개정된 학칙에 따른 것이다. 글로벌경영대학이 경영대학으로 이름을 바꾼 것은 글로벌배움터와 서울배움터 간의 명칭 혼란 방지 및 브랜드 인지도도를 고려한 결정이다. 명칭만 바뀐 학부·학과 편성 및 입학정원은 변동이 없다. 유경원(경영·경영 12) 경영대학 학생회장은 "실제로 '글로벌경영'이라는 명칭 때문에 신입생들이 혼란을 겪은 경우가 종종 있었다"며 "명칭 변경은 지난해 연말부터 추진돼 경영대학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고, 결과적으로 명칭을 변경하게 됐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사범대학도 2016학년도부터 '중국어교육과(이하 중교과)'가 신설된다. 신설된 중교과 입학정원은 17명이며, 이에 따라 프랑스어교육과와 독일어교육과는 7명, 영어교육과는 2명, 한국어교육과는 1명을 각각 감축한다. 여인영(사범·한국어교육 12) 사범대학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존과의 정원 감축 없이는 새로운 과를 신설할 수 없어 기존 네 과의 정원을 줄일 수밖에 없었다"며 "중교과의 신설이 확정된 만큼 내부적인 대비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범대학 안의 다섯 과들이 똑같은 입지를 공고히 유지하기 위해 학교 측에 중교과의 커리큘럼과 교수진 공개에 대한 요구를 할 예정"이라고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박은혜 기자 90iron@hufs.ac.kr

## 2016학년도부터 광역모집 철폐?

### 해당 단대 학생들 불만은 계속

지난 달 25일 진행된 우리학교 교무위원회 및 전체교수회의에서 광역모집 철폐안이 통과됐다. 광역모집 철폐는 광역화 제도를 시행했던 동양어대학, 사회대학, 서양어대학 학생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다. 이 폐지안이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2016학년도 신입생부터 광역모집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제는 학교 측이 광역화 제도 철폐에 대한 후속 대책은 고려하지 않은 채 '통보'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이다. 동양어대학, 사회대학, 서양어대학은 합동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광역모집 철폐에 대한 정확한 답변 요구와 함께 각 단과대학(이하 단대) 발전상 구상을 위한 총장면담을 요청했지만 학교 측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해왔다. 결과적으로 학생대표들과 아무런 상의 없이 광역모집 철폐안이 통과된 것이다.

김우리(동양어·태국어 13) 동양어대학 학생회장은 "특히 광역화를 시행한 14·15학번 학생들이 결국 자신들만 학교 행정의 피해자가 되는 것에 대한 불만이 크다"며 "대표적

으로 공통전공과목의 재수강 문제가 그렇다"고 전했다. 김형환(사회·미디어 12) 사회대 비상대책위원장(이하 비대위장)은 "사회대학의 경우 광역화에 특화된 커리큘럼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13학년도부터 커리큘럼을 마련해 달라고 주장했지만 단위가 작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결국 지금까지도 광역화에 따른 커리큘럼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어 "학교가 입시 결과를 올리기 위해 학사 행정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는 것이 안타깝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 또한 김동규(서양어·노어 12) 서양어대학 비대위장은 "서양어대학 공통과목의 재수강, 복학생을 위한 커리큘럼 수정, 엿학기 등의 문제가 많다"며 "엿학기로 인해 발생한 문제를 수습하기 위한 강제가 시급히 개선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합동운영위원회는 학교가 대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은혜 기자 90iron@hufs.ac.kr

## 학교는 안녕,

### 새로운 출발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 개최돼



▲왼쪽부터 조민지(통번역·영어 10), 송한나(통번역·영어 10), 한상명(통번역·영어 10)

지난 24일 양배움터에서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이번 학위수여식에서 양배움터를 더해 3,125명(학사 2,524명, 석사 544명, 박사 57명)의 졸업생이 배출됐다.

김인철 총장은 "학교에서 연마한 인격과 교양, 지식, 식견을 바탕으로 사회에 나가 자신의 뜻을 펼쳐나가길 바란다"며 졸업생을 향한 축사를 건넸다. 김준섭(동양어·아랍어 08) 군은 "졸업을 해서 기쁘고 정든 학교를 떠나게 돼 아쉬운 마음도 크다"며 "학교가 아닌 사회에서 후배 및 동문들을 이끌어가게 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신지수(통번역·영어 09) 양은 "2009학년도에 입학해 어느덧 6년이 지나 졸업을 해 감회가 남다르고, 동기들이 다 함께 하지 못해 안타깝지만 졸업생 모두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간 것 같아 기쁘다"고 졸업 소감을 전했다. 이날 학위수여식에는 가족, 선후배 등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해 기쁨을 더했다.

유혜민 기자 90hyemini@hufs.ac.kr

## 어서 와, 새터는 처음이지?

### 양 배움터 새내기 새로배움터 안전사고 없이 무사히 마쳐

양 배움터 학생들이 새내기 새로배움터 신입생 수련회(이하 새터) 일정을 모두 무사히 마쳤다. 글로벌배움터 학생들은 지난 달 12일부터 14일까지 강원도 횡성군 웰리힐리 파크, 서울배움터 학생들은 13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 속초시 한화리조트에서 2박 3일간의 새터 일정을 소화했다. 지난 해 벌어졌던 안전사고들을 고려해 개인정보제공동의서와 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학생은 새터에 참여할 수 없었다.

특히 이번 서울배움터 새터에는 동양어대학과 서양어대학이 연합해 새롭게 기획한 동서 연합편이 진행돼 각 단과대학(이하 단대)의 뜨거운 응원을 엿볼 수 있었다. 글로벌배움터는 과마다 프로그램을 직접 기획해 재학생과 신입생이 돈독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각 단대들이 모두 모여 혼잡한 가운데서도 양 배움터 모두 질서 있게 공연을 즐겨 안전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지원(동양어·인도어 12) 서울배움터 비상대책위원회장은 "신입생들이 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얻고 재학생들을 통해 학교생활을 알 수 있는 곳이 새터"라며 "이번 새터는 안전 문제로 성사가 불투명했지만 결과적으로 프로그램과 안전면에서 모두 합격점을 주고 싶다"고 자평했다.

이번 새터에 참여한 정수민(통번역·태국어 15) 양은 "팀을 이뤄 게임하면서 동기들과 선배들의 이름도 확실히 외우고 과의 분위기를 잘 알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오새롬(동양어·터키어 14) 양 또한 "처음으로 대학 문화를 경험하는 신입생들에게 선배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밝혔다.

박은혜 기자 90iron@hufs.ac.kr

# 뒤돌아보는 2014년, 학내 구성원에게 묻다

▶ 지난해는 우리학교의 60주년이었다. 경사스러운 해였지만 유난히 잡음이 많았던 2014년을 각 구성원 대표자들은 어떻게 돌아볼까? 본지는 우리학교의 지난해를 주제로 가상 좌담회를 꾸렸다. 김범 서울배움터 전 총학생회장(이하 김), 이지원 전 총부학생회장(이하 이), 박용구 전 교수협의회 회장(이하 박), 신승철 노동조합 지부장(이하 신)에게 들어보자. 글로벌배움터는 지난 한해 비상대책위원회로 운영돼 제외했다.



은 좋았다. 외부적으로도 캠퍼스 환경이 계속 좋아지고 규모가 커졌으며 대외적인 평가에서 좋은 평을 받은 부분도 분명히 있다. 그러나 학교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큰 변화가 없었던 것 같다. 내부적인 부분만 놓고 평가를 하자면 작년 한 해는 C+를 주고 싶다. 재수강이 필요하다.

60주년 맞았던  
2014년,

앞으로 불어올 변화의 바람 기대해

**1. 2014년은 우리학교의 60주년이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작년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고 싶나.**

박: 대학 평가, 발전기금, 성적 평가 등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 긍정적인 변화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 대학평가 때문에 성적평가가 중심을 잡지 못한 부분은 비교육적인 처사라 생각된다. 발전기금 또한 실질적 성과를 느끼지 못했다. 그러나 성과를 꼽자면 신입 총장의 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들 수 있다. 학생, 교수와 열린 마음으로 대화해 이야기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자세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닌 100년 외대를 준비하는 본질적 물음에 대한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바람직하고 심도 있는 대화 후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

신: 60주년을 기점으로 특별히 바뀐 것 같지는 않다. 하지만 학내에도 서서히 대화의 기운이 조금은 생겨간다. 과거 8년 동안은 너무 독선적인 학교 운영이었다. 그래서 곧 대화와 화해의 물꼬가 터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아직 그러한 변화가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구성원들 간의 대화의 장이 더 마련돼야 하고, 그것이 결국 학교 발전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라고 생각한다.

김: 학생들과 대화하려는 뜻도 있었고 학교 발전에 대한 의지나 노력이 많이 나타났다고 본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이 일반 학생들에게 와 닿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4년제 종합대학으로서의 발돋움을 시작한 것

**2. 지난 일기를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박: 임기 첫 1년은 박철 전 총장과, 나머지 1년은 김인철 총장과 한 해를 보냈기 때문에 연속성이 부족하고 끊어진 느낌이 든다. 지난해는 총장 취임 첫 해여서 취임 허니문이라는 말이 있듯 당장 평가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이 없었다. 따라서 교수협의회(이하 교협)의 비판적인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집행부와 학교의 청사진을 그리며 대화를 나눠야 했다. 그러나 집행부가 실용주의적 성격을 띠어 미래의 큰 그림을 바탕으로 한 세부적인 정책 수립 면에서 미흡했다고 보여진다. 교협의 다른 역할 중 하나는 교권 신장뿐만 아니라 다른 학내 구성원들의 문제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성적 평가, 노조와 학교의 갈등과 같은 사안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 같다.

신: 그동안 조합 활동이 정상적이지 않았다. 그렇기에 조합 활동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많이 했다. 아직까지는 조합원들의 정서적인 측면이 부족해 내가 생각하는 것에 절반 정도 수준에 미치지 않는다. 결국 미흡했던 부분이라면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지 못했던 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생각했던 일방적인 우리의 이익만을 대표하는 노조가 아닌, 학교 운영에 의견을 내며 참여하는 구성원으로서 노조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나름의 성과가 있다고 본다.

김: 지난해는 대표자들과의 소통, 연계를 중시했다. 전체학생대표자회의도 20번 이상, 중앙운영위

원회도 50회 이상 소집해 대표자들을 통해 학생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으려고 했다. 그러나 총학생회(이하 총학)가 8천 학우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하지는 못했다. 또한 총학생회칙 개정을 통해 학생회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이: 많은 것이 부족했지만 그나마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두렵지 않아졌다는 것이다.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돼 그 부분이 만족스럽다. 의견 전달에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친일 논란이 불거진 설립자 동상 문제나 성적평가방식 변경 소급적용 같은 불합리한 일에는 어쩔 수 없이 점거나 서명 운동을 벌일 수밖에 없었다. 기꺼이 동참해 준 학우 여러분께 정말 고맙다. 가장 미흡했던 부분은 역시 고질적인 문제인 '소통'이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했다고 말할 수 있지만, 모든 학우들을 아울러 소통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 특히 임기 말 성적평가방식 소급적용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정말 시급한 사안이었기에 총학이 의사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학우들과 소통할 수 있었던 시간이 많이 부족했던 점이 아쉽다.

**3. 총학과 노조는 지난해부터 계속해 학교와의 마찰이 있었다. 어떠한 입장 차이가 있었나?**

신: 사실 학교와 갈등구조로 갈만한 특별한 이유는 없다. 하지만 학교 측이 노조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든다. 학생들의 자치 활동처럼 노조도 하나의 자치 활동이다. 그런데 학교가 이를 인정하려는 노력이 아직은 부족한 것 같다. 학생이나 노조와의 관계에서도 학교는 상호 존중의 바탕이 잘못되었다. 자치 활동을 관리의 대상으로 여기니 당연히 온전한 대화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차츰 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본다. 변화를 위한 노력들이 조금은 보이기 때문에 희망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 그러나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또 다른 갈등과 불신이 쌓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위한 노력들이 이뤄져야 한다.

김: 학교가 입결과 교육부 지침을 중시했다. 학교에서 입결, 취업 등 교육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이느라 학생들이 원하는 교육의 질적인 발전보다 겉보기식 변화에 치중했다. 입결과 취업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희생을 강요한 면이 있었다. 지금 학생들 사이에서는 4년 동안 외국어를 학습해 완벽하게 구사할 수 없거나 외국어 전공보다 이중 전공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등의 지적이 나타나고 있다. 결국에는 교육의 질적 향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이 겉보기식 변화 때문에 '외대'라는 특성을 가지고 발전하지는 못했다고 생각한다.

이: 학생과 학교 간 반목의 근본적인 이유는 학교가 이미 학생보다는 학교의 입장을 중시하는 태도를 갖고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학교의 3주체는 교수, 학생, 직원인데 학교는 학교만이 주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우리의 의사를

배제하면서 학교의 입장을 관철하려는 모습이 실망스러웠다. 계속해서 학우들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서 의견을 전달하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학교와의 입장차는 조금도 좁혀지지 않았다.

**4. 학교와 총학, 노조 사이 갈등이 계속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협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박: 교수협의회는 교수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다른 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 학교발전을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 집행부와 재단을 여당과 같은 주 권력층으로 표현한다면 교협, 노조, 총학은 야당이라는 견제층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세 집단은 서로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기에 세 집단 모두 서로 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갈등을 중재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총학과 노조가 학교와 갈등이 생기면 양자를 절충할 수 있는 교협과 대화했으면 한다. 학교 집행부와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잦은 만큼 의견 중재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5. 2015년을 맞아 총학과 노조 내에 어떠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나?**

신: 지난해 12월 13일에 제16대 임원선거가 있었고, 2월 24일에 제18대 대의원선거가 있었다.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이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다. 대신 '조합이 조합답게'라는 그동안의 기초를 유지하고 학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기본을 다져 나가는 시기가 될 것이다. 또한 노조 내부의 세대 교체, 학생, 교수, 동문 등 학교 구성원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사업을 할 때가 됐다. 노조도 학내 구성원의 일원으로써 학교 발전에 책임도 있고 참여해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학교 문제에 한 걸음 물러나는 방관자적 입장에 서지 않을 것이다.

이: 학생회가 본질적으로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다. 작년 한 해는 총학 스스로가 자아 성찰을 많이 했다. 학우들의 목소리를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먼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제시하는 더욱 능동적인 총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

**6. 이번 해 교협이 학교에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박: 학교는 60년을 넘어 100년을 바라본다는 학교 슬로건처럼 나머지 40년을 준비하는, 목적과 현실성이 있는 한 해를 보내야 한다. 김인철 총장은 이를 토대로 남은 임기의 큰 그림을 그려 학내 사안을 집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학내 구성원들의 힘이 한 뜻으로 모여져 창발적 에너지가 폭발하길 바란다. 기본 자산이 많지 않은 우리 학교는 각자의 위치에서 조그마한 힘이라도 모아나가야 한다.

유혜민 기자 90hyemini@hufs.ac.kr

## 60주년을 맞는 외대학보, 이제 당신의 손으로 만드세요!

### • 외대학보사 9기 수습기자 및 사진기자 모집

모집기간 : 2015년 3월 3일(화)~2015년 3월 27일(금)

모집대상 : 양 배움터 4학기 활동이 가능한 학생

지원서 마감일 : 3월 27일(금)

필기시험 및 면접일 : 3월 28일(토)

합격자 발표일 : 3월 29일(일)

### • 지원서 수령 및 제출

서울배움터 국제학사 401호 02-2173-2504

글로벌배움터 학생회관 212호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문의사항 연락처 : 임수진 편집장(010-4257-9732)



# 우크라이나 내전 들여다보기



박정호  
동유대학대학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2월 12일 장장 16시간 동안의 기나긴 협상 끝에 민스크 평화 합의안이 승인됐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놓여있었던 우크라이나의 내전 상황은 민스크 4차 회담 덕분에 임시적으로나마 봉합될 수 있었다. 이번 민스크 합의안은 본질상 2014년 9월 5일 체결된 민스크 협약의 데자뷰나 마찬가지였다. 작년과 올해의 민스크 협정이 형식과 내용면에서 대단히 유사했기 때문이다. 4차 협상 참여자들(독일, 프랑스, 우크라이나, 러시아)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동부 분리주의 세력 간에 교전 중지와 평화 구축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삼고 있었다.

## 우크라이나 사태의 발생과 국제화

우크라이나 사태는 2013년 11월 21일 우크라이나 정부가 유럽연합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전격적으로 유보함에 따라 촉발됐다. 결과적으로 우크라이나의 대외정책 노선은 유럽행 궤도에서 이탈함과 더불어 러시아 쪽으로 방향을 급선회하게 되었다. 분노한 우크라이나 시민들은 독립광장에 모여 우크라이나의 유럽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반정부 시위를 벌여나갔다.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집단행동의 이면에는 집권 이후 야누코비치의 권력 강화와 독단적 국정운영, 사회 내부에 만연한 부정부패, 경제적 혼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반정부 시위 과정에서 시위대와 경찰들 간에 물리적 충돌이 여러 차례 발생해 100여명이 넘는 사상자가 속출함에 따라, 경찰의 강경한 시위 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지게 되었다.

2014년 2월 21일 국제적 조정자들(독일·프랑스·폴란드 외무장관, 러시아 대통령 특사의 중재 아래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 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여야 대표자 모임이 긴급하게 개최됐다. 회담의 결과로 여야 간에 '2·21 합의안'이 마련됐으나, 시위대의 주동 세력이었던 극우 민주주의 집단들이 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함으로써 정치적 대변

력이 발생하고 말았다. 의회 내에서 야당 성향의 새로운 다수파 출현, 친 정부 성향의 연립정부 와해,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러시아 도주, 헌법 개정과 대통령 탄핵, 새로운 혁명 정부 구성 등이 연쇄적으로 벌어졌다.

우크라이나 혁명세력의 권력 장악은 러시아에게 중대한 국가적 위협으로 간주됐다. 우크라이나 혁명정부의 유럽행 재개 선언은 푸틴 정부의 강대국 러시아 건설전략에 치명적인 악재나 다름없었다. 푸틴 정부는 우크라이나의 탈러시아 정책에 대한 강력한 대응 방안을 통해 자신의 힘과 영향력을 과시하고자 했다. 그 연장선상에서 러시아는 서방과 우크라이나의 영토 침탈에 대한 비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외교력과 군사력을 총동원해 크림반도 합병작업을 신속하게 마무리해버렸다. 한편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의 영토 침탈 행위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각종 경제적 제재 조치를 시행했다. 그 결과 러시아와 서방 사이에 냉전을 방불케 하는 새로운 대립구도가 형성됐다. 이처럼 우크라이나의 국가적 현안에 대해 러시아와 서방세계(미국과 EU)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나서에 따라 우크라이나의 정치 이슈가 국내 정치적인 성격을 벗어나 국제적인 중대 사안으로 부상하게 됐다.

## 동과 서 사이에서의 충돌

혁명 정부의 출범 이후 동부 지역에서 분리주의 집단들의 활동이 본격화됐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인민공화국을 선포하면서 주민투표 실시 등을 통해 러시아로의 귀속을 도모하고 있었다. 2014년 5월 대선을 통해 수립된 우크라이나 신정부도 영토적 단일성을 확립한다는 정치적 목표 아래 동부 분리주의 반군세력을 격퇴시키기 위한 군사작전을 감행했다. 정부군과 친 러시아 민병대 간 무력 충돌의 결과 유혈참사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말았다. 2014년 9월 1차 민스크 협정 체결 후 잠정적인 평화체제가 유지돼 왔지만, 올 초 교전이 재개됨으로써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5500명이 넘는 희생자들을 양산했다. 푸틴 정부는 내전 대비와 러시아인 보호라는 미명 아래 자국 군대를 우크라이나 동부 국경 근처에 집결하여 긴장 상황을 고조시키기도 했으며, 반군에 대한 암묵적인 형태의 군사적 지원을 통해 동부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력을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다.

우크라이나의 내전은 동서 지역주의에 근

원적인 동인을 두고 있었다. 우크라이나는 '동(러시아)과 서(중동부 유럽) 사이에 위치하면 서 역사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두 지역을 대표하는 강대국들로부터 지대한 영향을 받아왔던 국가였다. 독립 이후에도 '동'과 '서'라는 지정학적 특수성은 우크라이나의 정치과정과 대외정책 결정에 있어서 핵심 변수로 작용했다. 특히 친 러시아 성향의 동부 지역과 친 유럽 지향의 서부 지역의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국가적 통합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내부적 불안 요소였다. 우크라이나의 신정부 인사들이 주로 서부 지역에 정치적 기반을 두면서 친 유럽을 지향하고 있는데 비해, 동부 지역 반군들은 친 러시아 성향을 나타내면서 정부군에 대해 결사항전 태세를 취해왔던 것이다.

## 2차 민스크 합의와 우크라이나의 미래

내전 확산의 위기감 속에서 최근 체결된 2차 민스크 합의안은 극적으로 이루어진 정치적 대타협이었다. 이 협약은 독일과 프랑스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실적 계산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이다. 특히 유럽 측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에 큰 정치적 부담을 갖게 됐다. 만일 미국의 군사무기 지원을 빌미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사태에 본격적인 군사적 개입을 단행한다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더욱 복잡한 혼돈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전개는 유럽의 안보질서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자, 경제적으로도 상당한 손실을 초래할 개연성이 크다. 또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경우에도 경제적 위기에 처해있기에 내전 확산에 따른 추가적인 정치적 부담과 경제적 피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선택이다.

우크라이나 사태의 미래는 2차 민스크 합의안의 실행 여부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문제는 13개 항목으로 구성된 2차 민스크 합의안에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작동 메커니즘과 실행 로드맵이 구체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2차 민스크 합의안도 상황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1차 합의안처럼 폐기될 여지 또한 존재하고 있다. 결국 2013년 11월 21일에 시작된 우크라이나 사태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외대인이 만난 세계

# 회색의 도시, 베오그라드

나잠술(상경·경제 09)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로 가는 교통은 좋지 않다. 전쟁 직후 기차길은 모두 끊겼고 지금은 버스가 유일한 교통편이다. 8시간의 버스 끝에 비가 내리는 베오그라드에 도착했다. 베오그라드는 하얀 도시라는 뜻이지만 여행자들 사이에서는 회색 도시로 통한다. 거의 모든 건물이 무채색의 회색 빛이기 때문이다. 하얀 도시라는 애칭은 로마제국 시절 백색의 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회색으로 점철된 이곳에서 트램과 버스, 택시만 유독 빛나는 붉은 색이다. 이는 도시가 이상한 분위기를 뽐내는데 한 몫한다.

구 공산권의 거대한 상남갑 건물들과 트램, 그리고 기차들이 한데 자리잡고 있는 모습을 호스텔 발코니에서 내려보고 있자니, 포르투갈 작가 주제 사라마구의 소설 "눈 먼 자들의 도시"가 생각난다. 책을 읽으며 상상했던 도시 배경들이 여기저기 베오그라드와 잘 맞아 떨어진다.

구유고연방의 공산주의에 의해 계획적으로 분산된 생산시설과 지역특화는 효율적이었다. 세르비아는 유고슬라비아의 수도로 경제, 정치, 문화 등 거의 모든 것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연방 해체 후, 이것은 오히려 독이 되어 현재 각 독립국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 게다가 그간의 잦은 전쟁에 의한 피로감으로 공장이나 기술 등에 대한 발전도 더디다. 그래서인지 내가 만난 구유고연방 사람들은 티토 집권 당시를 그리워하는 경향이 있었다.

오스만튀르크가 줄곧 때리고 다니는 일진이었다면 세르비아는 종로에서 맞고 한강에서 푸는 비겁한 아이였다. 헝가리-오스트리아 제국과 오스만제국 사이에 끼어서 벅찬 힘겨루기를 하며 밟히다가도, 밑에 끼고 있던 크로아티아와 보스니아 코소보 등 작은 민족들이 흠여 지려하면 눈을 흘리며 "다시 안와?" 하며 주먹을 들었다.

역사는 상대적 강자의 기록이고 주관적이기 마련이다. 세르비아 사람들도 저만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두 제국 사이에서 치이다가, 유고슬라비아 연방으로 일어설 만 할 때, NATO가 참견해서 억울하게 폭격 맞았다는 식의.. 그런 이유로 서구열강에 대한 반감도 상당하다. 도심의 폭격 맞은 채 보존된 건물도 그들에 대한 일종의 시위행위다.

로마제국 이후 세르비아왕국, 오스만제국을 거쳐 현대까지. 세르비아는 지리적, 정치적 상황에 휩쓸려 많은 전쟁을 치렀다. 덕분에 20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하며, 40여차례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되는 수모를 겪었다. 그럼에도 견재하게 움직이는 베오그라드의 오늘은 깨끗하게 몸을 일으켜 세우는 회색 왕눈이 같은 인상을 줬다.

청명한 가을하늘의 노을은 아름답다. 붓칠로 대충 스쳐버린 구름과 강 위의 다리너머 지는 붉은노을. 해가 넘어갈듯 말듯 할 적에 다리를 건너, 도시건물들 사이로 사라져가는 노을을 이리저리 쫓으며 가라앉는 저녁공기를 맡아야 한 편의 노을을 잘 감상한듯한 느낌이다. 언덕에 올라 내려다보면 베오그라드가 불그스레 홍조를 품고 있다.

한국외국어대 동문 및 자녀 분들을  
특별한 혜택으로 모십니다. (한기열 부대표 정외 94인)  
(전용상담 02-3445-2557)

친절하고 편안한 무료상담  
**1577-2050**  
www.nnoble.co.kr

고품격 노블레스 No.1  
전문직/엘리트/상류층 성혼전문

#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서울본사(압구정) · 부산지사(해운대 센텀)  
미국동부(뉴욕, 플라싱, 맨하탄) · 서부(LA)

**엔노블은 가장 신뢰받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10개 명문대 총동창회 "동문 및 자녀" 결혼상담 협력사
- 한국경제신문 프로슈머, KBS TV가이드 추천 "BEST 결혼정보회사"
- 경향신문 유망브랜드대상, 모범기업인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회장상" 수상

**엔노블은 성혼을 제일 잘하는 결혼정보회사입니다.**

- 성혼주의 - 수준 높은 이성과 가장 많이 만날 수 있는, 성혼에 최적화된 회원제
- 프로필 안심 보증제 - 프로필이 사실과 다를 경우 최고 2억원 배상(책임보험)
- 부산직영지사 및 미국 4개 협력지사 운영 ■ VIP, 전문직 전담팀 운영

전문직/엘리트/노블레스 성혼전문  
**엔노블** 결혼정보회사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번호: 강남 080002  
서울본사 |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50-16 상원빌딩 5-5층 | 부산지사 | 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1514 센텀리더스파크 4006호

# 개정된 총학생회칙, 미리미리 대비하기

지난 해 개정된 총학생회칙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새학기, 달라진 회칙과 함께 학생 사회가 어떻게 바뀔지 꼼꼼하게 알아보자. 총학생회칙 검토는 유경원(경영·경영12) 학생회칙개정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문했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 ◆총학생회칙

개정된 총학생회칙 제85조에 따라 앞으로 총학생회장 또는 부총학생회장은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다. 또한 지난 해처럼 11월 총학생회장단 선거가 무산될 경우, 앞으로는 현임 총학생회장단의 임기가 3월 보궐선거 종료일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만약 총학생회장단이 사유가 있어 사퇴하게 되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한다.

학생총투표와 정책투표도 새로 신설된 제도다. 학생총투표를 통해 의결된 안은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안처럼 학생회가 반드시 따라야 한다. 50% 이상의 투표율로, 50% 이상 찬성이면 의결한다. 그러나 학생총회에서 의결된 안이 우선으로, 이 의결안은 학생총투표의 안건으로 상정될 수 없다. 만약 학생총투표에서 부결되면 그 회기에는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없다.

정책투표는 학생총투표와 달리 의결이 되더라도 학생회의 의사결정에 반드시 반영될 필요는 없다. 이는 의사 수렴이나 여론 파악을 위해 실시하는 투표로,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투표로 성립하며,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서울배움터 학부 재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학생총회, 전체학생대표자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총학생회장단 탄핵소추안이나 학생총투표와 정책투표에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 필요한 서류를 갖추고 학생들의 연서명을 받으면 가능하다. 학생총회와 학생총투표, 총학생회장단 탄핵소추

안에는 전체 재학생의 10분의 1, 정책투표는 15분의 1,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는 40분의 1이 서명해야 한다. 필요 서류는 총학생회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 ◆기록물관리세칙

총학생회, 단과대학 및 과 학생회, 동아리, 학회, 소모임 등 모든 자치단위는 앞으로 모든 자료들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이 자료들은 업무와 관련해 작성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자료와 행정박물을 포함한다. 기록물들은 안전한 보존을 위해, 필요할 때 효율적으로 쓰이기 위해 기록물 관리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된다.

만약 이 기록물을 의도적으로 훼손하면 학생 대표자들은 물론, 대표자의 신분이 아닌 모든 학생들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의 의결을 통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일반 학생이라도 공식 사과문이나 공개 사과, 일정 기간 동안 선거권과 피선거권 박탈, 제명 등의 징계를 받을 수 있으니 기록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 ◆공간운영세칙

신설된 공간운영세칙에 따르면 공간은 배정공간, 대여공간, 야외공간으로 나뉜다. 모든 자치공간을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해 공간운영위원회가 설립된다. 대여공간을 빌리려면 이 위원회가 정한 날짜까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여한 공간은 임의로 교환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만약 꼭 바꿔야 한다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한다. 야외공간을 행사나 사업, 홍보 등을 위해 사용하려면 원하는 날짜 일주일 전에 공간운영위원회에 신청해야 한다. 만약 같은 시간, 같은 대여공간을 빌리고자 하는 단위가 중복되면 그 단위의 담당자들과 공간운영위원장들이 논의해 구성원의 과반수로 결정한다. 하지만 야외공간은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공간운영세칙	
공간 분류	정의
배정공간	각 단위가 학교로부터 배정받았던 공간. 예) 총학생회실이나 과방 등
대여공간	각 단위가 공간운영위원회에 대여를 신청해 사용하는 공간. 예)대운동장, 오바미홀, 무용실
야외공간	서울배움터 내 실내 공간을 제외한 공간. 선착순으로 배정된다. 예) 국제학사 앞, 나무계단, 잔디광장, 인문과학관 앞, 붉은광장, 사이버관 나무계단, 본관중앙광장, 교수학습개발원 앞 잔디판, 사회과학관 옆 정자 등

▲공간운영세칙에서 분류하고 있는 각 공간과 설명이다.

## ◆재정감사운영세칙

재정감사운영세칙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자치회비를 어디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도 명확히 규정됐다. 앞으로 자치회비는 뒤풀이나 회식 비용, 해당 단위 모든 회원들에게 알리지 않은 사업에 대한 지출이나 장학금, 상급으로는 절대로 사용할 수 없다. 행사를 주최한 단체 또는 학생회장단, 집행위원회, 위원장단, 편집위원회 등이 소유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지출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하다. 다만 특별기구는 단체복에 한해 자치회비를 사용할 수 있다.

재정감사운영세칙	
지출 분류	자치회비 허용 여부
참가비 지원 비용	특별기구만 허용. 개인당 2만원 초과 불가.
상품 비용	현금 지급 불가. 중앙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개인당 2만원 이하의 음식료 상품권을 포함한 상품권 지급 가능.
수고 비용	봉사나 노동 등의 대가로 재학생들에게 지출하는 금액, 총학생회나 단과대학이나 학부의 회장단, 동아리연합회, 모든 집행위원회 위원, 특별기구, 학생 자치언론 대표 및 임원들에게 사용 불가. 사업 당시 우리나라 법률에 따른 최저임금 초과 불가.

▲재정감사운영세칙에서 유의해야 할 부분을 추렸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중앙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 ◆선거시행세칙

새로 개정된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투표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으로 이전보다 30분 미뤄지게 된다. 기존 세칙에서 투표소는 노천극장과 분수대 앞 2곳을 기본으로 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늘릴 수 있었다. 하지만 새 세칙에서는 투표소를 4개 이상 설치할 것을 명시해놓았다. 투표소 1개 당 투표함은 7개 이상 배치될 예정이다.

투표를 위해서는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이 때 신분증은 학생증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처럼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나 사진이 첨부돼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도 허용한다.

무효처리되는 투표지																			
예시 1	예시 2	예시 3	예시 4																
<table border="1"> <tr> <td>1번</td> <td>2번</td> </tr> <tr> <td>⊙</td> <td>⊙</td> </tr> </table>	1번	2번	⊙	⊙	<table border="1"> <tr> <td>1번</td> <td>2번</td> </tr> <tr> <td></td> <td>⊙</td> </tr> </table>	1번	2번		⊙	<table border="1"> <tr> <td>1번</td> <td>2번</td> </tr> <tr> <td></td> <td></td> </tr> </table>	1번	2번			<table border="1"> <tr> <td>1번</td> <td>2번</td> </tr> <tr> <td>⊙</td> <td>⊙</td> </tr> </table>	1번	2번	⊙	⊙
1번	2번																		
⊙	⊙																		
1번	2번																		
	⊙																		
1번	2번																		
1번	2번																		
⊙	⊙																		

▲그림처럼 두 개 이상의 기표란에 기표하거나 경계선 또는 표기란 밖에 기표한 것, 하나의 기표란에 3회를 초과해 기표하면 무효다. 투표용지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검인이 없거나 어느 기표란에도 기표하지 않은 것,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하지 않거나 문자 또는 이름을 기입하면 무효표가 된다. 투표 당시 공개해도 무효다.

**KMTCLINE**

**고객과 함께한 60년,  
그 열정으로 이제 고려해운이  
100년 기업을 만들어갑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전, 더 밝은 미래를 여는 혁신,  
더 깊은 가치를 위한 창조, 그 중심에 고려해운이 있습니다.

- 제21회 기업혁신대상 국무총리상
- 제14회 디지털경영혁신대상 유통부문 대상 미래부 장관상
- 2014년 한국해운물류학회 해운물류경영대상

본사 고객센터팀 Tel. 02-311-6114 Fax. 02-6008-8000 인천사무소 Tel. 032-883-2800 Fax. 032-232-0825  
부산지점 고객센터팀 Tel. 051-461-2800 Fax. 051-463-7281 울산사무소 Tel. 052-261-0234 Fax. 052-261-0233 [www.ekmtc.com](http://www.ekmtc.com)

# 졸업유예자, 그들이 몰려온다!

얼마 전 양 배움터에서 2014학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이 열렸다. 졸업생들은 꽃다발을 들고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는가 하면 학사모를 던지면서 졸업식 기분을 만끽했다. 하지만 이러한 즐거운 졸업식에 참석하지 못하고 학교로, 학원으로, 도서관으로 향하는 이들이 있다. 바로 졸업유예자들! 그들이 또 다시 몰려온다.

### ◆졸업유예란 무엇인가?

졸업유예란 쉽게 말해 졸업을 미루는 것이다. 이러한 졸업유예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가장 보편적인 것은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모두 이수해놓고 졸업논문이나 외국어 성적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졸업시험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이 미뤄진 경우(유형①)다. 또 다른 경우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이수하지 않고 일부 남겨두는 방법(유형②)이다. 몇몇 학교는 아예 졸업유예제도를 만들어 원하는 사람들은 따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유형③).

### ◆보편화된 졸업유예

이러한 졸업유예는 극심한 취업난 때문에 생겨난 대학가의 어두운 단면이다. 이는 대학교육연구소가 교육부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아본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대학교육연구소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태 조사한 176개 대학 중 졸업유예제도를 '실시하는 학교는 110곳으로 62.5%'를 기록했다. 이어 졸업유예제도를 시행하는 110개의 학교 중 2008~2012년에 졸업유예를 도입한 학교가 57곳으로 전체의 51.8%로 절반 이상이였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대학교육연구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취업 문제가 심각해지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에서 취업률 지표 비중이 컸기 때문에 대학들이 졸업유예를 도입한 것'으로 판단했다.

요즘 대학생들이 왜 졸업을 미루는 것인지 대학교 학우들에게 직접 물어봤다. 왜 졸업유예를 선택했냐는 질문에 '학사정(통번역·이탈리아어 11) 양은 '취업 전에 20대가 할 수 있는 대외활동은 대부분 자격조건이 재학생 또는 휴학생'이라며 "장기간 대외활동을 하기 위해 졸업유예를 선택했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교육 봉사를 하고 있는데 봉사단체조차도 재학생 신분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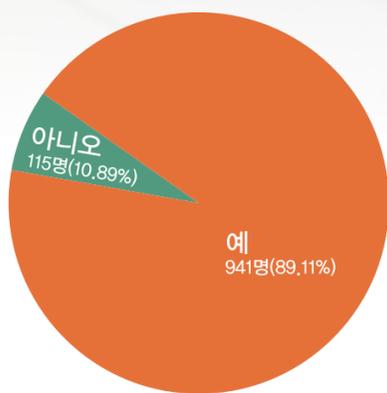
본지에서 지난달 25일부터 26일까지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조사에 참여한 우리학교 학생 1056명 중 89.11%에 해당하는 941명이 졸업유예를 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왜 졸업유예를 할 것인가?'하는 질문에 응답한 935명의 학생 중 466명이 '졸업 후 취업이 바로 되지 않을 시, 취업하기까지의 졸업생으로 보낸 공백기간이 입사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를 선택했다. 이는 전체 응답자의 49.84%를 차지한다. '졸업생보다 재학생이 입사 지원의 기회가 많기 때문에'(27.7%)와 '더 많은 스펙을 쌓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17.11%)라는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 ◆졸업유예자들을 바라보는 학교의 시선

이렇게 졸업유예를 선택하려는 학생들이 많아졌지만 학교는 졸업유예를 제한하고 있다. 졸업유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110개 학교 중 76개 학교가 졸업유예자들이 수업을 의무적으로 수강하도록 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강을 졸업유예자들의 선택에 맡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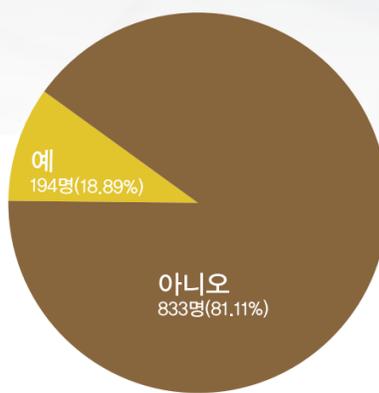
졸업유예에 대한 우리학교 학생들의 인식 (설문조사 기간 : 2015년 2월 25일(수)~26(목), 2일간)

• 졸업유예를 할 의향이 있는가?



응답자 수 1056명

• '졸업유예' '졸업유보' '졸업대기'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던 것이 하나로 통일돼 '수료'가 된 것을 아는가?



응답자 수 1027명

### 우리학교 학생들이 졸업유예를 하려는 이유 (응답자 수 935명)

- 1 졸업 후 취업이 바로 되지 않을 시, 취업하기까지의 졸업생으로 보낸 공백기간이 입사하는데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서 466명 (49.84%)
- 2 졸업생보다 재학생이 입사 지원 기회가 많기 때문에 259명 (27.7%)
- 3 더 많은 스펙(인턴, 공모전 등)을 쌓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160명 (17.11%)

27개의 대학 중에서도 15곳이 졸업유예하는 이들에게 등록금을 받고 있었다. 결국 전체에서 최소 83%에 해당하는 91개의 대학이 졸업유예자들에게 등록금을 받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대학교육연구소는 '교육부가 올해부터 실시 될 대학 구조개혁 평가에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비 환원율 등의 지표를 포함했는데 졸업유예생이 많으면 이러한 지표에 불리하다고 판단, 대학들이 졸업유예 기준을 까다롭게 개정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년도 말부터 졸업유예자와 관련된 기사와 뉴스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각종 교육연구소와 정부기관의 조사 자료도 등장했다. 그만큼 졸업유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급증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사와 자료들의 주된 내용은 '많은 대학이 졸업유예 조건을 까다롭게 바꾸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처럼 졸업을 유예하려는 학생들과 졸업 유예를 까다롭게 하려는 학교의 갈등이 대학 사회에서 자주 목격되고 있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우리학교는 어떤 상황인지 알아봤다.

### ◆우리학교 졸업유예는?

우리학교 졸업유예도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다른 대학들과는 조금 다른 유형의 논란이다. (우리학교의 졸업유예자들은 대부분 유형①의 경우다. 그러므로 아래에서 말하는 졸업유예자는 유형①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학교에서도 졸업유예와 관련된 변화가 있었다.

2014년 1월 29일에 올라온 <서울> 2013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결과 조희 안내)에는 '졸업이 불가한 학생 중 학점이수 완료자는 졸업대기(유예) 처리한다'는 내

용이 있다. 하지만 2015년 2월 2일에 공지된 <서울> 2014학년도 전기 졸업사정 최종 결과 확인 공고)에서는 '졸업불가자 중 졸업시험/논문 또는 인준이 미완료된 학생은 졸업대기(수료) 상태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확인한 졸업유예자들은 후시나 하는 마음에 재학증명서를 발급해왔다. 공지처럼 졸업유예자들에게는 재학증명서 대신 수료증명서가 발급됐다. 졸업유예자들은 우리학교도 이러한 추세에 편승해 졸업유예자를 내쫓으려한다고 생각하며 불만을 토로해왔다.

본지 취재결과 이는 1년 사이에 바뀐 것이 아니었다. 우리학교는 졸업유예제도를 시행한 적도 없고 2010학년도부터 수료제도를 시행하고 있었다. 2010학년도 9월 30일에 신설된 교무처 처무시행세칙 제81조 4항을 보면 '9학기 이상자로서 학칙에 규정된 졸업학점을 이수하였으나, 졸업시험(논문)불합격, 졸업·외국어 인준 미등록 등 졸업요건을 갖추지 못한 학생에 대하여 재학연한까지 수료생으로 인정하며, 이 경우 재적생(재학생 및 휴학생)의 신분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수료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명시되었다. 결국 예전부터 졸업유예자들은 재학생 신분에서 제외됐고, 이에 따라 재학증명서도 발급되면 안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학사종합지원센터(이하 학종지)에 문의한 결과 학생들의 말처럼 2014학년도 7~8월까지 졸업유예자도 재학증명서가 발급됐다고 한다.

그러면 왜 그동안 '수료' 대신 '유예'라고 나온 것일까? 사실 우리학교에는 졸업유예를 지칭하는 말이 다양했다. 졸업유예, 졸업유보, 졸업대기 등 여러 가지 용어가 혼용됐다. 이전까지 불명확했던 '학부 수료' 인정에 대해 최근 교육부의 승인을 통해 우리학교는 혼용되던 용어들을 '수료'로 통일한 것이다. 학생들에 눈에

는 '유예'에서 '수료'로 바뀐 듯 했지만 결국 변한 것은 없었던 것이다. 졸업유예제도가 없어진 것도, 바뀐 것도 아니었다. 변한 것이 딱 하나 있다면 '수료'라는 명칭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학생들에게 질문한 결과 응답한 1027명 중 81.11%에 해당하는 833명이 '아니오'라고 응답했다. 더 자세한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비교적 최근인 지난학기(2014학년도 2학기) 우리학교가 시행하고 있었던 제도에 대해 물어봤다. 그 결과 '수료제도(수료생신분, 재학증명서 발급 불가)로 정확히 알고 있는 학생은 전체 954명의 응답자 중 76명으로 7.97%에 해당한다.

학생들은 사전 설명 없이 변경된 것에 대해 당황스러워 했다. '학사정 양은 "많은 학생들은 졸업유예와 수료의 차이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공지도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앞으로 할 수 있는 대외활동이 제한될 것 같다"며 불안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또한 전영수(사범·한교 08) 군도 "학교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졸업유예와 수료를 같은 의미는 아닌 것 같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에 대해 김미자 서울 학종지 팀장은 "취업에 필요한 것은 졸업예정증명서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동안 규정에 맞지 않게 재학증명서가 잘못 나간 것은 시인한다"며 "지급의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 ◆정말 현실은 그럴까?

우리학교 경력개발센터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도 전체 졸업생 중 56.8%가 유예를 한 뒤 졸업한 학생이었고 43.2%가 8학기를 마치고 졸업한 학생이었다. 하지만 2014년도 취업률을 보면 8학기 졸업자의 취업률이 59.5%로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의 취업률(55.1%)보다 4.4%p 더 높았다. 이에 대해 김현숙 서울배움터 경력개발센터 팀장은 "졸업을 하고 나서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과 졸업유예를 하고 난 뒤 구직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마음가짐부터 다르다"며 "이는 졸업생과 졸업유예자의 취업률 차이로 나타난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은 기업마다 2년차, 3년차의 경력신입도 많이 뽑는다"며 "바로 졸업해 먼저 실무 경험을 쌓는다면 졸업유예자들보다 취업에서 유리하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졸업유예자가 더 좋은 조건으로 취업한다는 것으로 나타난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4년제 졸업생 54,357명을 조사한 결과 졸업유예자의 토의 점수는 789점으로 일반졸업자(754점)보다 35점이 더 높고, 인턴 경험 비율도 졸업유예자(17.5%)가 일반졸업자(13.8%)보다 높았다. 뿐만 아니라 졸업유예자의 선망직장 고용률은 31.3%, 월평균 임금은 221만원으로 일반졸업자보다 각각 5.9%p와 26만원이 더 높았다. 게다가 비정규직 비율은 27.7%로 일반졸업자보다 5.7%p 더 낮다. 결국 취업에 있어서 양적으로는 일반졸업자가 높게 나타나지만 질적으로는 졸업유예자가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학생들이 졸업유예를 포기할 수 없는 현실적 이유다.

# 다가오는 봄, 동대문구의 걷기 좋은 길

학점, 자격증, 대외활동, 봉사활동 ... 스펙은 잠시 내려두고  
우리학교 주변 산책로를 걸어본다.  
비쁜 삶은 잠시 접어두고 산책을 통해 지금 이 순간을 느껴보자.

유혜민 기자  
90hyemini@hufs.ac.kr

### ◆경희대학교

영화 <건축학개론>에서 승민과 서연의 첫 만남을 그린 첫 번째 촬영장소로 유명하다. 봄이 되면 벚꽃이 만발해 캠퍼스 커플의 데이트 코스 1위인 경희대. 우리 학교 후문으로 나와 골목길을 약 5분 정도 올라가면 경희대 후문에 도착한다. 후문과 연결된 학교의 정상에는 평화의 전당이 있다. 모 케이블 방송사의 오디션 프로그램 장소로 유명한 이곳은 학생 출입 금지 구역이니 유의하길 바란다. 이곳을 지나면 중세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중앙도서관과 음악이 절로 흐르는 왕관 모양 음악대학의 모습이 보인다. 승민과 서연이 처음 만난 이곳에서 노천극장을 바라보면 건축학개론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다.

### ◆홍릉수목원

우리학교 정문에서 273번 버스를 타고 국립과학원 구원 정류소에 내리면 아름다운 나무들이 펼쳐져 있다. 홍릉수목원은 고려대학교에서 경희대학교로 넘어가는 도로변에 위치한 국립산림과학원 안에 있다. 식물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수목원이라 평일에는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는다. 겨울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여름철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주말마다 무료로 이용가능하다.

홍릉수목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수목원으로 44만㎡ 면적에 수많은 국내식물이 있다. 형형색색의 다양한 풀과 나무는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거대한 정원으로 느껴지며, 울창한 나무들 사이로 조성된 2km 산책로는 도심속 조용한 자연의 길로 한숨 돌리기에 적합한 장소다.

### ◆중랑천

사람이 북적이는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 대신 가까운 중랑천 벚꽃길을 가보는 건 어떨까. 외대앞역 3번 출구로 나와 약 15분 걷다보면 중랑천 진입로가 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한강으로 이어진 오리의 섬터인 중랑천을 가까이 볼 수 있다.

자전거를 타며 바람을 만끽해도 좋고 친구 혹은 연인과 도란도란 얘기하며 걷는 것도 좋다. 걷다보면 운동기구, 인라인스케이트장 등의 여러 여가 시설도 있고 진달래, 목련도 무성히 피어있다. 사람과 경치를 바라보며, 벚꽃비를 맞으며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다. 아름다운 꽃 배경과 함께 사진을 찍어 프로필 사진으로 설정한다면 봄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 ◆서울시립대를 지나 배봉산 근린공원

우리학교 정문 앞 버스정류장에서 1222, 147, 261번 버스를 타면 서울시립대학교에 환승 없이 갈 수 있다. 서울시립대학교의 건물은 구관과 신관이 조화를 잘 이뤄졌으므로 이를 감상하면 좋다. 한적한 캠퍼스를 따라 한 바퀴를 돌아 나오면 배봉산근린공원으로 갈 수 있다. 해발 100m를 살짝 넘는 배봉산근린공원은 산이 드문 동대문구에서 유일하게 산속에 자리 잡은 공원이다. 공원의 산책로는 경사가 가파르지 않고 약수터, 운동기구 등의 편의시설도 곳곳에 있어 부담 없이 즐기기에 충분하다. 2006년 콘크리트 담장을 걷어내 이곳의 분위기는 더욱 아름답다. 꽃샘추위가 찾아와도, 녹음이 점차 우거져도, 하늘이 높아지고 다시 추위가 찾아온다 해도 이곳은 변함없이 우리에게 자연을 선물할 것이다.



### 운동장

## 변방의 두 팀이 축구계에 가하는 따끔한 일침

지난 2월 K리그 클래식의 전북 현대(이하 전북)는 아랍에미리트에서 우크라이나 프로축구팀인 올림피크 도네츠크와 두 차례 평가전을 치렀다. 3일(한국 시각)에 치러진 첫 번째 연습 경기에서는 보기 드문 장면이 나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올림피크 도네츠크가 골을 넣기 위해 공격을 전개하던 중 전북의 페널티지역 안에서 핸드볼 반칙을 범했다. 달려오던 선수가 때린 중거리 슈팅이 드미트로 흐리스코의 손에 맞은 것이다. 하지만 엉뚱하게도 심판은 전북의 반칙을 선언했고 올림피크 도네츠크에게 페널티킥이 주어졌다. 이상한 판정에 전북 선수들은 거세게 항의했고, 심지어 드미트로 흐리스코 선수도 심판에게 자신의 손에 맞았다고 자백했다. 하지만 심판은 판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결국 올림피크 도네츠크의 안드레이 미센코 선수가 페널티킥 지점 앞에 섰다. 이 상황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안드레이 미센코는 골대에 슈팅 때리지 않고 공을 밖으로 걷어낸 것이다. 이러한 결정에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박수를 쳤다.

이는 최근 부쩍 과격해지고 부도덕해진 요즘의 축구계 상황과 대비된다. '치아레스', '호날도란 무엇인가?', '톰밀러 살인테킬', '우즈벡 강패 축구' 등을 통해 알 수 있듯이, 부도덕한 플레이가 만연해진 축구계는 어느덧 페어플레이를 잊은 듯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해 몇몇 축구팬들은 더티 플레이가 경기의 재미와 극적인 요소를 더해준다고 말한다.

하지만 선수들이 스포츠맨십을 지니고 페어플레이를 할 때 비로소 온전히 경기의 규칙이 지켜질 수 있다. 경기의 규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축구는 축구만의 성질을 잃게 된다. 축구가 복싱이 되고, 핸드볼이 돼버린다. 아마 선수들과 팬들 중에서 축구가 사라지는 것을 바라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이번 경기에서 느낄 수 있듯이 페어플레이가 주는 감동은 한 편의 영화만큼이나 크다. 재미와 감동이 더해졌을 때 그 경기는 명경기가 된다.

이렇듯 스포츠에서 페어플레이는 매우 중요하다. 올림피크 도네츠크가 보여준 장면은 현 축구계를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이진형 기자

### 발언대

## 인식의 재고

지난 2월 11일 오전 10시 경 영종대교에서 10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100km의 속력으로 달리던 관광버스가 앞에 달리던 승용차와 충돌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73명이 부상을 입었다. 많은 사람들이 추돌사고 소식을 접한 뒤 안타까워하고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할 일을 하며 제각각 길을 간다.

유난히 힘들고 슬픈 일이 많았던 지난 해를 보내고 우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사고에 보다 무뎠어지고 단단해졌을 것이다.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정부는 언제나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방안을 내놓지만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디론가 쏙 빠져버리기 일쑤다. 관계자들은 책임 전가에 급급한 실정이다. 타진 수로를 두고 공사의 실익을 다루는 기업가들도 있다.

그렇기에 실제로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을 직시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나가는 것은 우리들의 몫이다. 예방 차원에서의 점검이나 노력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우리는 늘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며 사건사고가 일어나도 이를 무심하게 넘어가버려온다.

흔히 재난을 천재(天災)와 인재(人災)로 구별한다. 안전이란 이러한 재난에 대한 위협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무작정 안전하다고만 믿으며 주위를 살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위협에 노출될 것이다. 과거 임진왜란 10만 양병설을 주장한 울곡 이이도 김성일과 다른 주장을 내세우면 서까지 신중한 결정을 내렸던 것처럼 우리도 주변 안전을 꼼꼼히 둘러보고 인지해야 한다. 조금씩 안전에 대해 생각해보며, 오늘부터 가스밸브를 잠갔는지 확인해보길 바란다.

김현진 기자

# 민속문화로 접근하는 한국학

## 우리학교 한국학과 시이달(CedarBough Saeji) 교수님

우리학교 글로벌배움터에 2014년 신설된 한국학과는 우리나라에 초점을 맞춘 교육을 통해 글로벌 인재 양성에 기여하고 체험 학습, 인턴십 등의 통합 교육으로 자기 주도 학습을 수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시이달 한국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민속 정책과 전승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며, 탈놀이에 대한 남다른 애정으로 각종 강연과 강의를 병행하고 있다. 시이달 교수의 본명은 시더바우 새지(CedarBough Saeji). 한글 이름인 시이달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도 느낄 수 있다. 시이달 교수가 연구하는 한국학이란 어떤 학문일까?

시이달 교수는 일본을 제외하면 오랫동안 전통문화를 법으로 보호한 역사가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고 했다. 우리나라는 1962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해 문화재들을 비교적 잘 보호해온 국가 중 하나다. 시이달 교수는 일본과 한국처럼 무형 문화재를 보호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얼마 없다 보니 국외학자들도 우리나라 문화재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무형문화 보호제도의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 한국어로 쓰여지다 보니 다른 국가의 학자들은 번역해 연구하기가 어렵다고 아쉬워했다.

우리나라에서 보호해야 할 문화재 중 특히 춤 동작, 음악에 농담까지 섞여있는 탈놀이는 그녀에게 활력소 같은 존재가 됐다. 시이달 교수는 지난 십여 년간 탈놀이를 연구하고 공연하고 있다.

탈놀이에는 많은 종류가 존재한다. 시이달 교수는 탈놀이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같은 탈놀이라도 각각의 색이 다르다고 전했다. 모든 탈놀이는 각자 특별한 매력과 뛰어난 부분이 있다. 그저 똑같은 탈놀이로만 보일 수 있는 은울탈춤의 무당춤, 하회별신굿놀이의 양반/선비 마당, 그리고 수영아류의 한마당은 모두 제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

종류가 다양한 만큼 탈놀이 공연을 보



▲은울탈춤 사자춤

러 가면 생소한 공연을 접하게 될 기회도 많아진다. 시이달 교수는 “탈놀이를 정확하게 자세히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공연에 임하는 자세를 바꿔야 한다”며 “조금 생소한 탈놀이를 접하더라도 내가 그시대 사람인 것처럼 자연스럽게 생각하라”고 조언했다.

### “탈놀이와 탈춤은 다른 것”

사람들이 흔히 탈놀이를 오해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탈놀이와 탈춤의 차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탈춤을 모든 탈놀이를 아우르는 단어로 자주 쓰고 있다. 시이달 교수는 이러한 잘못을 지적하며 “1950년대 후반에서 1960년대 초반 사이에 황해도에서 내려온 망명자들이 봉산탈춤을 왔는데, 이 탈춤이 유명해지면서 대표적인 탈놀이가 됐다”고 말했다. 탈놀이는 본래 탈춤을 포함한 탈을 쓰고 하는 연극을 일컫는 말로, 흔히 쓰이는 것과 달리 탈춤은 탈놀이의 하위개념이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잘못된 단어 사용을 그녀는 “모든 엠프스리 플레이어(MP3 player)를 보고 아이팟(iPod)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하며 웃어보였다.

### 봉산탈춤이 한국 대표 민속문화? 아니다!

시이달 교수는 한국을 대표할 수 있는 민속문화로 어떤 것을 들까? 그녀는 한국의 대표적인 민속문화가 무엇인지 딱 꼬집어 대답하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했다. 우리나라의 풍어제만 예를 들어도 여러 지역의 풍어제가 있기에 하나를 꼽기 어렵다. 풍물도 6개의 중요무형문화재가 지정돼 있지만 이외에도 더욱 더 많은 유형이 살아있기에 어떤 하나가 대표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시이달 교수는 대표적인 한 가지를 정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다. 한 문화나 한 단체가 대표성을 띠면 나머지 단체나 문화들이 힘을 잃거나 피해를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시이달 교수는 “멕시코에는 ‘마리아치(mariachi)’라는 음악이 있는데, 이 음악은 지역마다 특징이 달라 서로 인정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며 “이러한 경쟁 덕에 항상 멋진 공연을 만들고 있으니 모두가 이익인 것처럼, 다양한 문화를 모두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문화가 다 같이 아우러져야 발전하고 제대로 전승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민속문화 전승의 필요성

민속문화가 전승되는 방법이 과거와 달라짐에 따라, 같은 종류의 민속문화라도 다양한 색깔을 보존하며 다음 대에 이어지기가 훨씬 수월해졌다. 조선 시대만 해도 능력이 월등한 한 선생 아래서 많은 학생들이 그를 따라배웠다. 지금은 수많은 선생들이 각자의 것을 가르치고 있다. 시이달 교수에 따르면 과거에는 민속문화를 배울 때 스승에게 스스로를 무조건 맞춰야 했지만, 요즘에는 본질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람마다 다양한 색을 견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 한 민속문화가 전승되는 구조는 ‘보유자(자격)-전수교육조교-이수자-전수자’ 순으로 이뤄진다. 하지만 이수자에서 전수교육조교로 건너뛰기는 매우 힘들다. 그러다보니 전체 구성비율도 조교부터는 급격히 적은 숫자가 된다. 하지만 시이달 교수는 이수자와 전수자에 주목한다. 그녀는 “보유자와 전수교육조교 같은 전문가들을 연구하는 것도 좋지만, 이수자는 상대적으로 젊으면서 대개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실력자들”이라며 “앞으로의 민속문화는 이들이 이끌어 나갈 수 있기에 이수자나 전

수자의 행보를 연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 대한민국, ‘우리만의 것’에 대한 관심과 열정 부족해

최근 많은 사람들이 케이팝(K-pop) 전반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분석하고 있지만, 시이달 교수의 시각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케이팝을 연구하는 대부분의 시선이 음악적 분석이나 경제적 측면, 앞으로의 가능성에 맞춰져 있는 반면, 시이달 교수에게 케이팝은 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이다. 탈놀이에 이어 케이팝의 춤에 대해 접근해 논문을 쓰고 있는 그녀는 케이팝에서 우리나라만의 색이 없어지는 현상을 아쉬워했다. 시이달 교수는 “언젠가부터 뮤직비디오 감독, 안무가, 백댄서(back-dancer)들이 외국인이라며 케이팝의 대중성을 자랑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현상이 한국만의 음악이라는 케이팝의 의미를 잘 살린 것일까”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만의 것을 지켜나가는 데 관심이 부족한 것은 탈놀이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난다. 우리나라는 약 50여년간 무형문화재를 보존해 왔기에 그녀의 눈에는 배울 점도 많고 연구할 점도 많다. 하지만 정작 대한민국 국민들의 관심이나 민속문화를 체험하는 경험은 부족하기만 하다. 시이달 교수는 “탈놀이만 해도 한 번 공연을 위해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관객이 없거나 보러온 관객들도 딱 지만 한다”며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시이달 교수는 한국 사람들이 민속문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배우려는 날이 올 때까지 열심히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녀는 앞으로 민속놀이 전승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현진 기자 90hyung1781@hufs.ac.kr  
사진 제공 시이달 교수



▲고성오광대 승무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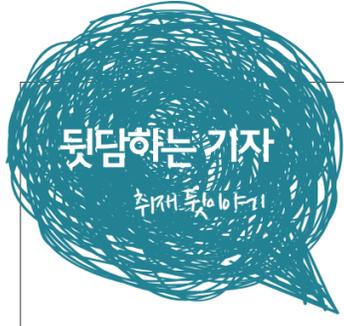
▲가산 오광대



▲말뚝이



▲송파신대놀이 상좌춤



## 춥고 긴 겨울을 보내는 따뜻한 입김

‘와! 드디어 개강이다!’ 조금 우습고 바보같이 들릴지 모르지만 개강이 그리웠다. 그 이유는 다른 때와 달리 유난히 이번 겨울방학이 길고 지루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정말 지겨우리만큼 기나긴 겨울이었다. 아마 이렇게 느낀 것은 나 혼자만이 아닐 것이다.

이번 겨울 유난히 학교에 일이 많았다. 방학이 시작되자마자 학생들은 2학기에 수강했던 전 과목이 상대평가로 바뀐다는 소식을 접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학생들이 불안한 마음에 편히 방학을 즐기지 못했다. 결국 크리스마스 전후로 간담회가 총 3차례나 열렸고 방학이었지만 많은 학생들이 참석해 자리를 지켰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수님들과 직원 선생님들도 간담회에 참석해 오랜 시간 동안 학생들의 입장을 들었다.

하지만 몇 시간 동안의 간담회를 통해서도 학생과 학교 사이의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 간담회가 여러 차례 이어지고 진행되는 시간도 계속 늘어지다 보니 학생들과 교수님 그리고 직원 분들 모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서로 같은 말들만 계속 반복하고 도저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심지어 간담회 도중 학생들과 교수님 사이에 고성이나 오가기도 했다. 학교와 학생 사이의 관계가 급격히 얼어붙는 듯 했다.

씨늘한 냉기는 학교와 학생 사이에서만 도는 것이 아니었다. 양 배움터 총학생회는 진행하는 일마다 어긋나며 대부분의 일정을 각자 소화했다. 간담회도 가처분 소송도 2015학기 성적평가방식 관련 요구안 제출도 거의 모든 것이 따로 진행됐다. 이에 대해 양 배움터의 많은 학생들이 아쉬움의 목소리를 냈다. 결국 성적평가방식이 변경되도 양 배움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다. 서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두 번할 간담회나 면담을 한 번에 하고, 학교 측에 요구하는 사항에도 입을 모아 하나의 목소리로 힘을 실었다면 조금 더 일이 빨리 진행되고 더 나은 결과를 얻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아직까지는 양 배움터의 물리적인 거리만큼이나 심리적인 거리도 먼 듯하다.

교수님이든 교직원이든 총학생회든 앞으로는 계속 마주쳐야 할 학내 구성원인데 조금 더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으면 한다. 돌아보면 지속적으로 씨늘한 표정과 차가운 말투로 서로에게 얼굴을 붉힌 경우가 많았다. 구성원들끼리 신뢰를 잃어가고 서로가 서로에게 비난의 대상이 됐다.

이제는 어떤 사안에 대해 자기들끼리만이 아니라 다른 구성원들과도 머리를 맞대고 충분히 논의가 이뤄져야 할 때다. 서로의 입김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에서 상대방에 대한 냉정 대신 존중으로 소통한다면 어느새 겨울은 지나가 있을 것이다. 이제 곧 개강인데 과연 봄이 올까? 속는 셈치고 한번 기대해본다.



이진형 기자

## 어깨너머 듣는 교양

### 문학이란 무엇인가?

이진홍(미네르바 교양대학 · 문학이란 무엇인가 강의)



오래된 그리스 신화에 따르면, 시인이자 음악가인 오르페우스는 매혹적인 목소리와 리라연주로 인간뿐만 아니라 짐승까지도 유혹했다고 한다. 아내인 유리디스가 독사에 물려 죽자 리라를 켜고 노래하면서 명계의 신들을 매혹시켜 죽은 아내를 다시 지상으로 데려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그러나 명계의 강을 다시 건너기 전까지 그녀를 돌아봐서도, 말을 건네도 안 된다는 한 가지 조건이 있었다. 답소사! 조바심을 참지 못하고 오르페우스가 뒤돌아본 순간 그는 유리디스를 영원히 잃어버렸다.

이 신화의 해석은 어렵지 않다. 의심할 여지 없이, 모든 서구의 전통이 지적하는 것처럼 오르페우스는 최초의 시인(예술가)이다. 그가 가진 미술적인 힘은 시가 인간과 세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상징한다. 시와 사랑이야말로 죽음의 신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유일한 두 가지 힘인 것이다. 그러나 이 승리는 조바심 나는 욕망으로 인해서 언제나 불안하고 깨지기 쉽다.

오르페우스가 죽음의 경계에서 위험을 감수했듯이 모든 시인은 보이지 않는 것을 정면으로 바라보려고 시도하는 자들이다. 지하 세계로의 하강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정신의 모험을 의미한다면, 시인들의 시도는 언어의 심층으로 내려가 보이지 않는 진리를 폭로하려는 것이다. 모든 시인에게는 오르페우스의 환영이 살아 숨쉬고 있다. 그리고 그 오르페우스의 환영은, 냉혹한 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즉각적인 효용성만이 지고의 가치로 인정되기에 갈수록 시문학의 위상이 의심받고 문제시되

고 있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살아있고 또 인류가 존속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문학이란 무엇인가라는 강좌는 약간은 도발적으로 들릴 제 목이지만, 대학의 일반교양 강좌의 범주에서 문학이 무엇인가를 이해하는데 그 주목적을 둔다. 그러나 이 강좌에서는 기존의 문학 개론 수업처럼 문학의 각 장르에 대한 정의나 그 연구 방법론, 혹은 그 기법들에 대한 논의는 피한다. 그런 것도 필요하고 그만한 가치는 있는 것이겠지만, 그러한 논의가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원초적 활동의 하나로서의 문학의 본질에 대한 검토를 도의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문학이란 무엇인가' 강좌는 일차적으로는 문학의 본질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된다. 이는 총 3부로 구성된 이 강의의 1부를 차지한다. 2부는 인식론적인 접근이다. 이 단계에서는 '현실적 가치가 떨어지는' 문학이 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존재해왔으며 앞으로도 여전히 존속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다룬다. 또한 문학을 이해하는 데 기본이 되는 도구들에 대한 이해를 위해 마지막으로는 20세기 말부터 닥쳐온 디지털 정보 과학이라는 새로운 도전이 문학에 가져온 변혁과 그에 도전하게 되는 문학의 운명에 대해서 다룬다. 이를 다루는 이유는 문학역시 현실에 터전을 갖고 있으며 그런 이유로 어떤 차원에 있어서는 현실과 사회로부터 결코 유리될 수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일시 정지

### 두근거리는 마음, 굳은 다짐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유난히 추웠던 겨울방학이 성큼 지나 또다시 새로운 시작, 개강을 맞았다. 개강을 앞두고 다들 '열공'이라는 굳은 다짐을 세우지 않았는가. 한 장, 두 장, 책장을 넘기며 마음의 양식을 채워나가지.

유혜민 기자 90hyemini@hufs.ac.kr

## 외대학보 독자위원회를 모집합니다

2015년 1학기 동안 외대학보를 비평해 주실 독자위원을 모집합니다.

◆활동내역◆ 2015년 1학기 외대학보 981~985호 비평 후 비평문 작성(총 5회, 개인 1~2회)

◆모집단위◆ 글로벌배움터 3명 / 서울배움터 3명

◆모집기간◆ 3월 11일(수)까지

◆지원방법 학교 공지사항에서 지원서 다운 또는 학보사에서 지원서 수령 후 학보사에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제출

서울배움터 90iron@hufs.ac.kr / 글로벌배움터 90yoon@hufs.ac.kr

◆지원자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 성실하게 참여할 수 있는 외대 구성원

◆활동혜택 - 비평문에 대한 소정의 원고료 지급

- 외대학보 독자위원 수료증 지급

- 상품권 지급

◆문의 서울배움터 박은혜 기자 010-9179-9970 / 글로벌배움터 박윤진 기자 010-9595-1484

독자위원이 써주신 비평문은 매 호 외대학보에 실립니다. 학보도 꼼꼼히 읽고, 사람들과 만나 토론하고 싶은 지식인을 환영합니다.



# 포기하면 행복합니다



▲ '사토리세대'란 마치 득도한 것처럼, 어떤 것도 탐내지 않고 욕망을 억제하며 살아하는 세대를 말한다. 사토리(さとり)는 깨달음, 득도의 뜻을 지닌 일본어로 1980년대생부터 90년대생까지 현재 20대 중·후반인 사람들을 일컫는다. 사토리세대는 필요 이상의 돈은 필요 없다고 말하며 낭비를 하지 않는다. 이들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의 후유증으로 나타났다. 사토리세대는 미래를 현실적으로 보는 현명한 집단이라는 평가도 받지만 기성세대들에게는 부정적으로만 비친다. 기성세대의 눈에는 의욕적이고 어떠한 일에도 도전해야 할 20대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까지 보인다.

▲최근 큰 흥행을 한 영화 <국제시장>에서 보여준 아버지의 삶은 현 50·60대 베이비부머 세대들에게 큰 공감을 줬다. 그들이 살아왔던 시대에는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회의 성장을 통해 '성공'이 가능했다. 하지만 현 20대들에게는 무한경쟁만 보일 뿐, 성공의 가능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학교에 입학해 대외활동을 하고, 2학년이 되면 토익, 3학년과 4학년 때는 취업준비, 그 사이 학점관리는 기본. 그리고 취업 전쟁을 거쳐 사회에 뛰어들다. 하지만 취업을 해 돈을 벌게 된다고 해서 결혼을 할 수 있는 것도, 집을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현실에서 사토리 세대가 꿈꾸는 것은 먼 미래의 행복이 아닌 현재의 행복이다.

▲일본에서 실시한 생활 만족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인의

70%는 '현재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20대의 79%가 만족한다고 답했다. 이는 일본의 거품경제 시대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다. 사토리세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높았던 기성세대를 비롯기라도 하듯 말이다. 책 <일본 젊은이들은 왜 행복한가>의 저자 후루이치 노리토시는 '현재 젊은이들에게 부모 세대처럼 열심히 일해 집과 차를 마련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설계할 전망이 있다면 아마 대다수 젊은이들은 현재 행복의 상당부분을 희생할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게 더 바랄 미래가 없기에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아닌 현재 자신의 생활방식을 즐기는 것을 택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상황을 돌아보면, 우리나라도 언젠가 일본을 따라가지 않을까 싶다. 청춘이라는 이유만으로 젊은이들이 아파야 할 필요도, 천 번을 흔들려야 할 필요도 없다. 아프면 그대로 병이 들고, 흔들리다가 꺾여버리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나라에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삼포세대에 이어 이에 더해 더해 인간관계,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오포세대까지 등장했기에 애초에 포기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토리세대의 출현은 먼 미래가 아닐 것이다. 포기를 선택하는 젊은이들을 다그치기보다 왜 그들이 이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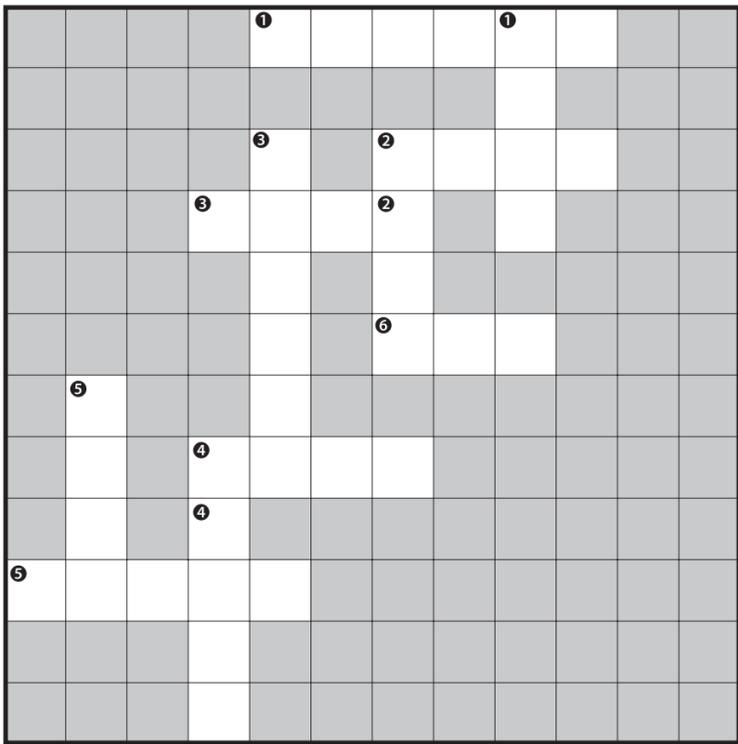
# 외대와 함께한 외대학보 60년

1955년 4월 11일에 창간된 본지가 이번 학기에 환갑, 즉 60주년을 맞이할 예정이다. 사람 나이로 치면 천지 만물의 이치에 통달하고 듣는 대로 모두 이해하게 된다는 '이순'이다. 본지는 지난 60년 동안 우리학교와 사회의 다리 역할을 하며 우리학교의 학풍을 선도했고 외대가족의 소통채널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였다. 본지는 그동안 많은 외대인들의 고민과 비전을 담아오면서 우리학교의 어제와 오늘을 그리고 미래를 전달하는 대학 매체로 꾸준히 발전해왔다. 지난 2008년에는 기존의 대판에서 베를리너판형으로 판형을 바꿈으로서 다양한 레이아웃을 시도하기도 했다. 이를 통해 본지는 많은 편집의 변화를 이끌었고 독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지난 60년 동안 외대와 세계를 품었던 본지는 이제 다가올 100년을 위해 또 다른 변화를 준비하고자 한다. 새로운 미디어 환경과 인터넷 매체의 증가로 대학 언론의 역할과 위상도 과거에 비해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 속에 대학언론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본지는 지난 2월에 현재 트렌드 및 주 독자층의 취향을 고려한 직관적이며 세련된 홈페이지를 새롭게 구축했다.

이와 함께 이번 개강호를 통해 더욱 현대적인 이미지로 학보 제호를 바꾸게 됐다. 특히 한국외대라는 브랜드 아이덴티티 확립 차원에서 개발된 대학 서체 '외대체'를 외대학보 제호와 홈페이지에 활용함으로써 우리학교의 브랜드를 대외적으로 홍보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고 있는 외대의 역동성과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자 했다. 본지는 이번 변화를 통해 지면의 질을 더욱 높이고 읽기 편한 신문을 만드는 데 전력을 쏟을 예정이다. 나아가 외대 공동체의 진솔한 소통을 위해서도 본지는 머리만이 아닌 가슴으로 외대 구성원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진정한 감동을 주는 대학신문이 되도록 노력해 다가오는 창간 60주년을 알차게 준비하겠다.

## 십자말풀이



### 가로

1. 새로 개정된 0000000에 따르면 투표 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6시 30분으로 이전보다 30분 미뤄지게 된다. (6면 참조)
2. 재정감사운영세칙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자치회비 중 0000은 중앙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면 개인당 2만원 이하의 음식료 상품권을 포함한 상품권으로 지급 가능하다. (6면 참조)
3. 우리학교 홈페이지에서 0000체를 내려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면 참조)
4. 2015학년도 1학기부터 교양 0000이 개편됐다. (3면 참조)
5. 독일과 프랑스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현실적 개선이 종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물로 000000이 이뤄졌다. (5면 참조)
6. 지난 2월 12일 성적평가제도 효력정지 000 소송이 기각됐다. (2면 참조)

### 세로

1. 하안도시라는 뜻의 베오그라드를 수도로 하는 나라는? (5면 참조)
2. 2015학년도 1학기부터 모든 강의를 0000로 시행하며, 수강생 10명 이하의 강의만 평가기준이 완만한 '탄력적 0000'를 실시할 수 있다. (1면 참조)
3. 2016학년도부터 우리학교 사범대학교에 0000000가 신설된다. (3면 참조)
4. '뒤돌아보는 2014년, 학내 구성원에게 묻다'의 인터뷰이들은 노동조합 지부장, 전 총학생회장단, 00000 회장. (4면 참조)
5. 1인 출판사 M&K의 구모니카 대표는 0000라는 용어를 싫어한다. (12면 참조)

### ※행운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퍼즐에 정답을 적으신 후 촬영해 외대학보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를 누르신 후 메시지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추신 분께는 추첨을 통해 1명에게 영화예매권 2장, 또 다른 1명에게는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지난호 당첨자는 페이스북에서 확인해주세요. 이번호 당첨자부터는 페이스북과 학보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 취업과 인문학

2월 5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 전국 대학생 대표자 10여명 앞에서 "인문학보다 취업이 우선"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 발언 전 교육부는 신년 업무 보고에서 산업수요 중심 정원조정 선도대학을 지정하겠다고 발표했다. 학과 개편이나 정원 조정을 통해서 대학이 기업과 지역의 수요에 맞게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고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말은 거창하지만 결국에는 교육이 아니라 취업에 중점을 두고 대학 교육을 떠나가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

이러한 논리는 지난 해 우리학교가 독일어교육과와 프랑스어교육과를 학부 체제로 바꾸겠다고 하며 펼쳤던 것과 같다. 우리학교 뿐만 아니라 취업률을 이유로 인문계열 학과를 통폐합하거나 정원을 줄여버린 학교가 많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 또한 경영학 등 취업에 도움이 될 이중 전공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지는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한 말하기에 이번 발언은 더 실망스러울 수밖에 없다. 구급은 신입사원 중 50%를 인문학 전공자 중 채용하는 데 비해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인문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아예 채용하지 않거나 극히 소수만 채용한다. 물론 당장 현장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을 뽑는다는 이유도 그럴듯하지만 인문학 또한 기업이 발전하는 데에 도움을 줄 생각하는 힘, 비판하는 힘, 그리고 상상하는 힘을 길러주는 학문이다. 무조건 인문학을 탓하기보다는 이러한 채용 방식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인문학이 모든 학문의 기초라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은 인문학이 버림 끝에 섰지만 다음에 또 어떤 학문이 그 자리에 서게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인문학을 희생시키거나 뒤로 미뤄놓는 것보다, 인문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돌아볼 시간이다.



남으려는 학생  
내보내려는 학교.



박혜성

외대학보는 독자의 의견을 통해 빛이 납니다.

독자기고	지구촌을 읽다(15매) / 외대인이 만난 세계(8매) / 어깨너머 듣는 교양(7매)
소정의 선물	독자기고를 해주시분께는 소정의 원고료와 상품권을 지급합니다.
기사제보	http://www.hufspress.net/ 편집장 임수진 010-4257-9732, 87curious@hufs.ac.kr

## 외대 학보

창간 1955년 4월 11일  
 발행인 김인철  
 편집인 겸 주간 오종진  
 편집장 임수진  
 부 장 김다정  
 제작 artel | 인쇄 중앙일보  
 학생기자실 (서울) 02-2173-2504 / (글로벌) 031-330-4112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국제학사 401호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외대로 81 학생회관 201  
 www.hufspress.net

**Q.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잡지사나 방송국을 그만두고 왜 1인 출판기업이라는 어려운 길을 택했나?**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방식이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은 일정한 틀에 박힌 삶을 강요한다. 특정한 나이가 되면 대학에 가야 하고 취업도 해야 하며, 일정한 시기가 되면 결혼을 하고 애도 낳아야 한다. 어느 날부터 이렇게 일정한 틀을 강요받는 삶에 대해 의문을 갖기 시작했는데 그때 나는 서른이었다.

그러다보니 그 즈음 '보헤미안', '노마드'와 관련된 책에 빠져버렸다. 이런 책들을 읽다보니 틀에 박힌 삶에 대한

도한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계속 살핀다. 편집이 끝나면 디자이너에게 보내 디자인 작업에 들어간다. 마찬가지로 디자이너가 작업을 잘 하고 있는지 관리하고 작업이 끝나면 인쇄소로 보내 제작을 시작한다. 이 과정에서는 제작 담당자와 함께 중이를 사고 인쇄본의 품질도 확인한다. 그리고 유통을 담당하는 외주에게 맡겨 서점에 유통한다. 책을 판매하고 나면 정산을 하기 위해 경리가 된다. 서점에서 판매된 책에 대한 계산서를 발급받고 매달 세액 계산서를 발행하는 일을 맡는 것이다.

이렇듯 M&K는 직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 그룹처럼 일을 진행한다. 각 부서들은 자신들이 맡은 일들을 하며 각자 돈을 벌아가는 독립적인 사업체

부담스러워서 일을 아예 혼자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듯 인맥이 있어 좋은 일이 많을 수는 있지만 이를 사업에 이용하고 인맥만으로 사업적 이익을 얻는 것은 아니다.

**Q. 도서기획출판 M&K는 2·30대 여성들을 주요 고객층으로 삼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2·30대 여성들이 제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책도 많이 읽는다. 그리고 2·30대 여성들이 잘 살아가면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것이라 믿는다. 또 그녀들은 엄마, 커리어 우먼, 싱글 등 여러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이처럼 여자의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를 살고 있는 그녀들에

에게 진짜 기획이란 자신의 관심사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그녀는 항상 돌아다니며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관심이 가는 영역을 확장시킨다. 그렇게 2009년에 새로운 관심사를 찾아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에 입학했다.

**Q. 왜 새로운 관심사로 문화콘텐츠학을 택했나?**

전자책 때문이다. 전자책에 대한 관심은 5년 전에 시작됐다. '미국에서 아마존 킨들이 종이책 판매량을 뛰어넘었다'는 기사가 나오고 출판사들이 들쭉거렸다. 출판사들이 미리 준비해놓지 않으면 기술적으로 앞선 IT기업들이 전자책 시장을 전부 장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출판사들에게 빨리 전자책을 준비하라고 말하고 싶었다. 이때부터 출판사들을 위해 전자책을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래서 찾아보니 우리학교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가 있고 문화콘텐츠학과 안에서 전자출판과 디지털출판을 연구할 수 있어 입학했다. 이러한 기대를 안고 대학원에 들어왔더니 실제로는 철학 공부를 주로 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자책 사업에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전자책이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 읽기, 쓰기의 산물이다. 철학을 공부하면 이러한 읽기, 쓰기 문화의 흐름을 읽어낼 수 있다. 그래서 미래의 디지털 읽기, 쓰기의 모습을 예측하고 구체적인 콘텐츠를 구상해볼 수 있었다.

5년 전부터 전자책이라는 새로운 시장에 관심을 둔 구 대표는 앞으로의 출판 시장을 어떻게 내다보고 있을까? 그녀는 많은 생각을 필요로 하는 인문과학이나 철학도서만 종이책으로 출간되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자기계발도서, 3D그래픽이 필요한 과학도서는 전자책으로 분야에 따라 특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Q. 세계적으로 전자책이 많이 읽히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전자책 시장은 매우 협소하다.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는가?**

영어권 국가에서는 전자책이 소위 '대박'이 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 모두 시장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한글이라는 제약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도 번역을 통해 영어권으로 도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동번역도구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책을 번역해 세계에서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시장이 좁기도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전자책이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먼저 우리나라에는 전자책 유통사가 너무 많다. 지금 전자책 시장에는 2~3개의 유통사만 있으면 된다고 본다. 또 디지털콘텐츠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기술(DRM)이 유통사마다 다 다르다는 점도 문제다. 그래서 독자가 자신만의 전자책 서재를 갖지 못하고 유통사마다 서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전자책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이에 많은 비용이 든다. 제작이 간편해져 많은 전자책이 출간되고 이를 한두 군데의 유통사에서 판매하면 한국 전자책 시장은 활성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전자책 전용 단말기 보급과 전자책 이용 경험을 높이기 위한 이벤트도 전자책 시장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녀는 현재 '일 년에 전자책 백 권 만들기'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그리고 정식 사업은 아니지만 전자책을 제작하는 벤처기업을 학생들과 함께 만들고 싶다고 한다. 전자책 시장을 위해 애쓰는 그녀가 있기에 머지않아 혁신적인 전자책을 만나볼 수 있을 것 같다.



## 일에도 연애에도 당돌한 여자, 구모니카

구모니카 대표는 젊은 나이에 1인 출판사 M&K의 사장이 된 뒤 지금까지 출판업계에서 동분서주하고 있다. 직원 수보다 출판사 브랜드가 더 많은 그녀. 구 대표는 'M&K', 'M&Kids', '꿈꿀 권리'와 같은 출판사를 운영하며 독자들에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 또 그녀는 종이책에 안주하지 않고 '디지털링'과 '한국출판콘텐츠'에 몸담으며 전자책 시장에 과감하게 뛰어 들었다. 뚜렷한 주관과 과감한 결단력을 지닌 구모니카 대표를 만났다.

반감이 더욱 강해졌다. 자꾸 머릿속에 의문이 쌓여가는 도중, 지금까지 했던 일들을 돌아봤다. 그 동안 잡지, 신문, 방송을 제작하는 일을 하며 사람들을 만나 인물과 사건 등을 취재해왔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을 알게 됐고, 사람들 하나하나가 각각의 콘텐츠로 보였다.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계속하고 싶었고 제일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결국 출판사를 설립하게 됐다.

또 보헤미안처럼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직장을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어야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프리랜서보다는 사장의 삶이 더 나을 것 같아 사업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사무실도 없이 무작정 사업을 시작했다. 이러한 계획을 바로 실행에 옮겨, 동봉구청에 가서 출판사 등록을 하고 출판사 사장이 됐다.

그녀는 자신이 불안정한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직장인의 삶은 안정적이고 직장인이 아닌 사람의 삶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들의 말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했다. 오히려 일반적인 직장인들보다 자신이 더 안정적인 삶을 산다고 자신했다.

**Q. 1인 출판 기업이면 직원이 본인뿐이기 때문에 업무에 어려움이 많을 것 같다. 어떻게 업무가 이뤄지는지,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는지 알고 싶다.**

1인 기업은 사업의 모든 과정의 관리를 혼자서 담당해야 한다. 모든 일을 직접 할 수는 없으니 일부는 외주를 맡기지만 결국 내가 일을 계속 감시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해야 한다. 그래서 어려움이라면 일의 모든 과정을 지켜 봐야 하는 것이다.

우선 책의 장르와 주제를 정하는 회의에 참여한다. 그 다음 저자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주고 여러 논의를 통해 책을 구체화시킨다. 저자가 원고를 보내 편집 담당자에게 책의 편집을 맡긴다. 이 때도의

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대부분 중요한 일은 전문가들이 하지만 시장은 전체 일을 관리하고 감독한다. '그냥 잔소리만 하는 일이잖아'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머릿속에 모든 제작 과정이 들어있어야 하고 관련된 지식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뚜렷한 주관과

### 과감한 결단력

**Q. 혼자서 모든 일을 관리·감독해야 하는 어려움을 어떻게 해결했으며 본인의 어떤 능력이 가장 도움이 됐는가?**

아무리 많은 일이 있어도, 정리하고 체계화하는 능력이 탁월하면 어려움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운이 좋게도 원래부터 해야 할 일들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서 정리 정돈되는 성격이다. 아무리 일이 많아도 오늘, 일주일, 한 달, 6개월, 1년, 3년, 6년, 10년 계획들을 체계적으로 세운다. 지금도 출판사, 전자출판사, 연구센터, 학회, 검임교수 등 하는 일이 많지만 머릿속에서 각각의 일들을 언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정리가 잘 돼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선 꼼꼼하게 계획을 짜고 세세하게 메모하는 습관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나의 외향적인 성격이나 인맥이 1인 기업을 이끌어가는 가장 큰 원동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렇지 않다. 물론 인맥이 있어서 도움을 받은 부분도 있다. 하지만 사업이란 일반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만은 없다. 오는 것이 있으면 가는 것도 있어야 한다. 나는 이런 것이

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너무나도 많다.

사실 지금은 계획을 조금 수정했다. 나이가 마흔이 넘으니 2·30대 여성들의 마인드를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웃음) 물론 그들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분야로 남겨두고 또 다른 길을 개척하고 있다. 현재 공부하고 있는 문화콘텐츠학을 바탕으로 '꿈꿀 권리'라는 출판사에서 학술서적을 출간해내고 있다. 그리고 M&K에서 확장한 M&Kids라는 출판사를 통해 아동서적을 제작하고 있다.

M&K를 설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07년 그녀는 '싱글이라도 괜찮아?'라는 다큐멘터리에 출연했다. 그 이후로 '골드미스'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지만 그 꼬리표가 맘에 들지 않는 그녀다.

**Q. '골드미스'라는 용어를 싫어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골드미스(Gold Miss)'는 노처녀(Old Miss)를 비아냥대는 말이다. 이 단어에는 '돈 좀 번다고 시집도 안 가면서 사치를 부리고 다닌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열심히 번 돈을 스스로에게 투자하겠다는데 이렇게 불리면 화가 난다.

또 결혼이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은 아닌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한다고 욕을 한다. 유럽이나 미국을 보면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할 일로 여기지 않는다. 특히 여성들은 '결혼을 할 것인가, 일을 할 것인가'하는 선택의 기로에 설 때가 있다. 결혼하면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람들도 많지만 사업이나 어떤 일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안 하는 것도 선택인데 그러한 선택을 사회적으로 존중해줬으면 한다.

이와 같이 그녀의 뚜렷한 결혼관은 2·30대 여성을 겨냥한 M&K의 커다란 원동력이자 보탬이 됐다. 그녀는 결혼뿐만 아니라 기획에 대한 주관도 뚜렷하다. 구 대표